베를린
in Berlin

외유내강

1. 웨스틴 호텔 옥상 통로 - 실내/낮

거친 숨소리. 어두운 통로를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며 코트를 뒤집어 입는 표종성의 뒷모습.

보안 카메라에 잡힌 화면으로 모자를 뒤집어쓰고 이동하는 종성이 보인다.

절박한 표정으로 복도에 붙은 내부 통로 지도를 살피며 빠져나가는 종성. 안경과 목 폴라를 벗는다.

2. 웨스틴 호텔 옥상 (Berlin) - 실외/낮

어두운 실내에서 밖으로 나오는 종성. 좁은 계단을 뛰어올라간다.
옥상으로 올라와 주변을 살피는 종성. 옥상을 달린다.

다른 옥상 출구.
다른 출구로 옥상에 나온 천세황이 다급하게 주변을 살핀다. 건너편 옥상을 달리는 종성을 발견한 세황이 종성을 쫓아 사라진다.

종성이 옥탑 쪽을 향해 달려 지붕을 타고 오른다. 옥탑을 오른 종성이 주위를 살핀다.

종성이 옥탑을 내달려 아래로 점프한다!
쿵! 무겁게 착지하며 몸을 굴리는 종성. 바로 일어나 내달린다.

옥상 구조물들 사이로 종성이 달려가는데-
쿵!- 구조물들 사이에서 튀어나온 세황이 종성에게 보디체크!
바닥을 구르는 두 사람.
종성이 몸을 일으키는 순간, 관자놀이에 철컥- 총구가 들어온다.
서서히 일어나는 두 사람. 이 뒤로 베를린 풍경이 펼쳐진다.
종성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들이대고 호흡을 고르는,

천세황

... 조용하게 가자...

긴장하고 선 두 남자 너머로 베를린 풍경이 펼쳐진다. 이 위로 뜨는 자막.

“세 시간 전”

3. 하케셔마크트 벼룩시장 (Berlin) - 실외/낮

각종 물품 거래로 분주한 벼룩시장에 낯선 동양인 표종성이 나타난다.
아랍 상인이 파는 케밥 코너에 서는,

표종성 (독일어)
두 시까지 따뜻하게 하나만.

케밥을 먹으며 건널목 신호를 기다리는 종성. 케밥을 쌌던 종이를 확인한다.
케밥을 포장했던 종이에 호텔 숫자가 적혀있다.
신호 바뀌고, 종성이 사람들 틈에 섞여 길을 건넌다. 이 위로-

아심 (영어 소리)
미사일 테스트 결과는 어쩔 거야? 우리한테 말했던 수치와 2킬로미터 이상 차이가 났어.

4. 웨스틴 호텔 방 (Riga) - 실내/낮

차악- 러시아 무기 브로커 '유리'가 방안 커튼을 친다.
아랍 테러리스트 수장 '아심'과 마주 앉아 있는,

표종성 (영어)
우리 쪽 기술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테스트요.

아심 (영어)
소총이나 구형 미사일 같은 건 문제가 안 돼. 중요한 건 신형 미사일이지.

유리가 작은 전파 방해기를 방안에 켜놓는다.

5. 국정원 위장차량 안 - 실내/낮

인서트. 웨스틴 호텔에서 빠지면, 호텔 건너편에 정차해 있는 승합차가 보인다. (Berlin).
이 위로 지지직거리는 소리 겹치며-

천세황 (소리)
야야, 이거 갑자기 왜 이러냐?

어두운 위장차량 안에 설치된 모니터를 보고 있는 세황. 그 옆에서 바쁘게 키보드를 조작하는,

분석관 1

... 영상은 들어오는데...

모니터에서 종성과 아심이 있는 방이 흐릿하게 나오고(Riga), 지지직거리는 소리 계속 이어진다.

천세황

사운드, 사운드!

분석관 1

회선에 문제는 없는데... 래디오재밍이라 음성 디코딩이 안돼요.
(다급해진 세황이 기계를 만지려하자)
에헤! 에헤!-

천세황

껐다 켜도 안 되냐?

6. 웨스틴 호텔 방 (Riga) - 실내/낮

은행계좌로 연결된 유리의 노트북 너머로 보이는 종성. 병에 든 물을 마신다.

표종성 (영어)

신형 화성 호를 사지 않으면, 다른 물건들도 못 넘겨.

유리 (영어)

이러지들 말고... 우선 계약 먼저 하고...

7. 국정원 위장 사무실 내 상황실 - 실내/낮

분석관 두 명과 함께 모니터를 통해 표종성과 아심의 거래현장(Riga)을 보고 있는,

강민호

노트북 열었잖아! 사운드! 사운드!

8. 국정원 위장차량 안 - 실내/낮

강민호의 지시가 들리는 가운데 모니터를 주시하며 상황 보고하는,

천세황

아직 계약상황 아니야.
(모니터에 뜬 종성을 가리키며)
야, 쟤 얼굴 땡긴 거 뽑았어?

종성의 얼굴(Riga)을 확대하는 모니터. 다른 모니터에서 종성의 얼굴을 정지시켜 분석 프로그램을 돌린다.

분석관 1

아무 정보가 안 떠요. CIA, MI6, 모사드 전부 관련인물 기록이 없습니다.

정보 칸이 빈 채로 표종성의 얼굴이 출력된다. 출력된 종이를 보는,

천세황

야... 오랜만에 고스트를 다 보네.

9. 웨스틴 호텔 방 (Riga) - 실내/낮

종성과 아심 양쪽을 설득하고 있는,

유리 (영어)

... 그런 식으로 북한 쪽 기술자들이 직접 참석해서 신형 미사일 테스트를 한 번 더 하는 걸로 정리하면 어때?

이때 적막을 깨고 들리는 휴대폰 진동소리. 서로 돌아보는 사람들.

10. 국정원 위장 사무실 내 상황실과 국정원 위장 차량 - 실내/낮

모니터에 휴대전화를 받는 표종성의 모습(Riga)이 나온다.
천세황과 강민호가 긴장하며 이를 지켜본다.

강민호

(분석관들에게)
야, 소리 좀 들리게 해보라니까!

11. 웨스틴 호텔 방 (Riga) - 실내/낮

살짝 당황한 눈치로 통화하는,

표종성

나중에 통화합시다.
(옆에 있는 유리탁자 위에 휴대폰을 뒤집어 내려놓으며 영어로)
미안하오.

유리판 아래에서 보면, 종성의 휴대폰 액정 화면이 통화상태로 켜져 있다.

12. 북한 대사관, 기밀 통신실 (Riga) - 실내/낮

표종성 (영어 소리)

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오.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지.

북한대사 리학수와 여비서가 종성의 거래내용을 듣고 있다.

아심 (영어 소리)

당신네 새 지도자는 젊잖아. 융통성을 좀 보여.

13. 웨스틴 호텔 방 (Riga) - 실내/낮

계약서를 사이에 두고 팽팽하게 아심과 신경전을 벌이는,

표종성 (영어)

융통성? 반제국주의자라는 사람들이 협상은 제국주의자들 논리로 하오? 우리 쪽 조건은 변동할 수 없소.
(마시던 물병을 내려놓으며)
잠깐 실례 좀...

일어서는 종성을 보며 화상 입은 손으로 수염을 쓰다듬는 아심. 불쾌하다.

14. 국정원 위장 사무실 내 상황실과 위장차량 안 - 실내/낮

모니터를 통해 화장실로 이동하는 종성(Riga)을 보는 세황. 분할화면으로 보이는,

강민호

뭐야? 사인 끝난 거 아냐? 쟤 지금 어디 가는 건데?...

천세황
(분석관 1에게 짜증스럽게)
야, 시끄러우니까 그거 좀 꺼라.
(모니터 화면 가리키며)
저 테이블 위에 핸드폰 확인해봐.

15. 웨스틴 호텔 방, 화장실 (Riga) - 실내/낮

종성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며 세컨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건다.

16. 북한 대사관, 기밀 통신실 (Riga) - 실내/낮

종성의 전화기를 통해 들리는 소리를 듣고 있던 여비서,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기계장치 선들을 빠르게 연결한다. 리학수가 긴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본다.

17. 웨스틴 호텔 방, 화장실 (Riga) - 실내/낮

화장실.
빈 변기 물을 내리고 세면대 수도꼭지를 트는 종성. 세컨 휴대폰으로 바깥 상황을 듣고 있다.

유리 (영어 소리)
정말 왜들 이래? 계약하러 온 거지 협상하러 온 게 아니잖아.

호텔 방.
종성이 켜 둔 휴대폰 너머로 아심을 설득하고 있는,

유리 (영어)
내가 최근에 중개한 계약 중에 가장 합리적이라고. 지금 이건 자
존심 싸움 하는 걸로 밖에 안 보여.

아심 (영어)
(화장실 쪽을 신경 쓰며)
... 달러로 맞춰줄 수가 없어...

화장실.

종성이 세면대 물을 틀어 놓고, 테이블 위에 두고 온 휴대폰을 통해 들리는 바깥 대화내용을 듣고 있다.

유리 (영어 소리)
유로는 괜찮고? 거기까진 내가 설득할 수 있어.

18. 국정원 위장차량 안 - 실내/낮

화장실에서 나온 표종성이 자리에 앉는 모습(Riga)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무전 연락하는,

천세황
헬퍼 레디.

19. 웨스틴 호텔 로비 (Berlin) - 실내/낮

로비 곳곳에 있던 국정원 위장요원 세 명이 무전을 들으며 대기상태에 들어간다.

20. 웨스틴 호텔 방 (Riga) - 실내/낮

종성의 화물선적 계약서와 유리의 노트북을 번갈아 보며 화상 입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탁탁탁 두드리는,

아심 (영어)
사인 먼저 하면, 송금하지.

표종성 (영어)
송금 먼저.

21. 국정원 위장차량 안 - 실내/낮

긴장이 흐르는 호텔 방 풍경(Riga)이 모니터에 잡힌다. 결국 아심이 노트북 엔터키를 누르고 노트북 화면을 종성에게 돌려 보여주자(Riga) 모니터보며 급하게 무전 하는,

천세황
액션, 액션!

22. 웨스틴 호텔 로비 (Berlin) - 실내/낮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던 국정원 위장요원 세 명이 빠르게 호텔 계단 쪽으로 이동한다.

23. 국정원 위장차량 안 - 실내/낮

종성과 아심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려다 멈추는 모습(Riga)이 모니터로 보인다.
서로 총을 꺼내 상대에게 겨누는 종성과 아심(Riga)을 보고 무전으로 소리치는,

천세황

컷! 컷!

24. 웨스틴 호텔 로비, 중앙 계단 (Berlin) - 실내/낮

계단으로 뛰어올라가던 국정원 위장요원 세 명이 리시버 내용을 들으며 흩어진다.

25. 국정원 위장 사무실 내 상황실 - 실내/낮

아심과 종성이 서로에게 총을 겨눈 채 몸을 숨기고, 유리가 노트북을 챙겨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Riga)이 모니터에 잡힌다.

강민호

뭐야 이거!!! 내부상황 파악 안 돼?!!!

26. 웨스틴 호텔 방, 화장실 (Riga) - 실내/낮

화장실로 들어온 유리가 재빨리 노트북 자판을 두드려 계좌이체를 중단시킨 뒤 칩을 빼낸다. 이 위로 푸슉- 푸슉- 퍽! 퍽! 소음총 소리와 물건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린다.
유리 노트북 화면에 “위험” 표시가 뜬다. 엔터키를 누르는 유리.

27. 국정원 위장차량 안, 거리 - 실내,외/낮

호텔 방에 갑자기 침입한 사람들을 향해 아심과 종성이 총을 쏘는 모습(Riga)을 모니터로 보며 무전 하는,

천세황

계약 파토 났다! 헬퍼들 빠져!
(자리에서 일어나며 분석관 1에게)
내가 직접 안내양으로 갈아탄다.

웨스틴 호텔 앞거리. (Berlin)
세황이 위장차량 문을 열고 나와 웨스틴 호텔을 향해 뛴다. 앞을 가로지르던 차를 위험하게 뛰어 넘으며 호텔로 달리는 세황.

28. 웨스틴 호텔 방 (Riga) - 실내/낮

푸슉- 푸슉- 푸슉- 방안에 소음기로 무장한 남자들이 총격전을 벌이고 있다.
침대 뒤에 숨은 아심은 제대로 총도 쏘지 못하고 당하고 있는 상태.

화장실.
푸슈슉- 유리의 노트북 내부가 터지며 스파크와 연기가 난다.
한 손에 총을 든 유리가 다른 한 손으로 칩을 자석에 비벼대며 상황을 지켜본다.

29. 북한 대사관, 기밀 통신실 (Riga) - 실내/낮

긴장한 리학수와 여비서가 휴대폰을 통해 들리는 총격전 소리를 듣는다.

30. 웨스틴 호텔 방 (Riga) - 실내/낮

푸슉- 푸슉- 아심 건너편 벽 뒤에 숨어 침착하게 응사하며 버티는 종성.
푸슉- 팍! 종성이 쏜 총에 침입자 하나가 맞아 쓰러진다.
침입자 리더(다간)가 쓰러진 동료를 뒤로 끌고 간다.

31. 국정원 위장 사무실 내 상황실 - 실내/낮

모니터를 통해 총격전이 멈춘 호텔 방 상황(Riga)이 보인다.
강민호가 긴장하며 모니터를 주시한다.

32. 북한 대사관, 기밀 통신실 (Riga) - 실내/낮

잠시 흐르는 정적에 긴장하는 리학수와 여비서. 이어서 긴장을 깨며 들리는 목소리.

다간 (영어 소리)
우린 모사드다!

리학수의 표정이 굳어진다.

33. 웨스틴 호텔 방 (Riga) - 실내/낮

쓰러진 동료를 살피며 종성을 향해 협상하는,

다간 (영어)
십분 뒤에 우리 청소 팀이 도착해!

상황을 살피는 종성. 이 위로-

다간 (영어)
더 이상 크게 만들지 말고, 여기서 정리하자.

아심이 종성을 보고 있다.

화장실.
유리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젓는다. 이 위로-

다간 (영어 소리)
우린 무기거래는 관심 없어. 러시아 브로커하고 아랍 테러리스트 신병 확보만 하면 돼.

종성이 아심을 지켜본다.

다간 (영어)
그 친구들 아니어도 거래할 곳은 많잖아.

34. 웨스틴 호텔 원형복도 (Berlin) - 실내/낮

귀에 리시버를 낀 세황이 원형복도를 내달린다.

분석관 1 (소리)

안내양 샜어요!

35. 웨스틴 호텔 옥상 통로와 국정원 위장차량 안 - 실내,외/낮

옥상통로.
(인트로 반복)
거친 숨소리. 어두운 통로를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며 코트를 뒤집어 입는 표종성의 뒷모습.

국정원 위장차량 안.
보안 카메라에 잡힌 화면으로 모자를 뒤집어쓰고 이동하는 종성이 모니터에 뜬다.
바쁘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위치를 알리는,

분석관 1
옥상 쪽입니다!
(다른 모니터로 재빨리 건물 주변 위성사진을 열며)
옆 건물들하고 이어져요.

36. 웨스틴 호텔 옥상 다른 통로 - 실내/낮

문을 치고 나와 스마트 폰 위성지도 사진으로 주변 건물을 확인하며 달리는 세황. 이 위로-

분석관 1 (소리)
따라잡으려면 복도 반대편 직원 통로로 이동하세요.

37. 웨스틴 호텔 옥상 통로 계단 - 실내/낮

종성이 계단 문을 열고 나오는데, 문 쪽으로 달려오던 국정원 위장요원과 마주친다.
순간, 거칠게 위장요원을 공격하는 종성. 힘 있게 곳곳의 급소를 쳐 위장요원을 쓰러뜨린다.
이어서 종성을 따라 문을 열고 나오는 위장요원을 연속으로 제압하고 계단 위를 오르는 종성.
위층에서 달려오던 위장요원이 종성을 향해 계단 아래쪽으로 권총을 겨누자,
종성이 권총 든 위장요원의 손을 잡아채며 계단 아래로 잡아챈다.
국정원 요원이 계단을 구르고, 종성은 계단을 오른다.

38. 웨스틴 호텔 옥상 (Berlin) - 실외/낮

(인트로에서 소개되었던 장면들이 빠르게 편집된다.)

어두운 실내에서 밖으로 나오는 종성.
옥상을 달리는 종성.

다른 옥상 출구.
다른 출구로 옥상에 나온 천세황이 다급하게 주변을 살핀다.

종성이 옥탑을 내달려 아래로 점프한다!
쿵! 무겁게 착지하며 몸을 굴리는 종성.

옥상 구조물들 사이로 종성이 달려가는데-
쿵!- 구조물들 사이에서 튀어나온 세황이 종성에게 보디체크!
바닥을 구르는 두 사람.
종성이 몸을 일으키는 순간, 관자놀이에 철컥- 총구가 들어온다.
서서히 일어나는 두 사람. 이 뒤로 베를린 풍경이 펼쳐진다.
종성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들이대고 호흡을 고르는,

천세황
... 조용하게 가자...

표종성
... 남조선에선 관자놀이에 겨누라고 배우나?

천세황
... 거래물품하고...

표종성
(세황이 숨 돌리느라 말을 바로 잇지 못하자)
관자놀이에 겨눈 총구는 부상은 입혀도 죽이진 못해.

천세황
... 거래은행 계좌만... 확인하면 된다.

표종성
고개만 돌리믄 총알은 빗나가거든.

천세황
(흐르는 땀에 눈을 깜빡이며)
... 알았으니까, 일단 가서 얘기하자...

하는데, 종성이 고개를 옆으로 확 돌리며 몸을 숙인다.
탕!- 동시에 본능적으로 세황이 총을 쏘고, 화염이 종성의 귓불을 스친다.

귓가에 피를 흘리면서 재빨리 세황의 팔을 제압하는 종성.
세황이 종성의 공격에서 빠져나가고,
종성이 자신의 품에서 총을 꺼내 세황에게 겨눈다.
순간, 세황이 종성을 향해 철컥-! 방아쇠를 당기는데, 슬라이드가 빠져있다!
세황이 당긴 방아쇠에 움찔하는 종성.
방아쇠를 당겨놓고 약간 놀라는 세황.
종성이 세황의 총을 쳐낸 뒤, 권총을 거꾸로 쥐고 사정없이 세황의 뒷덜미를 내리친다! 퍽!-

39. 타이틀

베를린 전경이 펼쳐지는 항공촬영 화면. 이 위로 뜨는 타이틀.

베를린
in Berlin

40. 표종성의 탈출 - 실내,외/낮

(바디캠 이미지)
귀에서 흐르는 피를 손수건으로 막은 채- 어두운 실내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종성.
문을 열고 나가자 바앙-! 종성 앞으로 차들이 빠르게 지나간다. (Berlin, 하케셔마크트)
사람들을 지나치며 전철역으로 들어서는 종성. 전철이 빠르게 지나간다. (Berlin, 하케셔마크트)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종성. (Riga)
계단을 오르는 종성. (Riga)

41. 표종성의 집 - 실내/낮

우당탕- 귓가에 흐르는 피를 손수건으로 막은 채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는 종성. (집안은 모두 커튼이 닫힌 상태라 낮인데도 어둡다. 집안 어디에도 종성의 흔적은 없다.)
종성이 조그만 작업 방으로 들어간다.
종성이 바닥을 툭 치자 바닥이 뜯긴다.
바닥에서 권총 상자를 꺼내는 종성. 상자를 연 뒤 그 옆에 권총을 꺼내 대충 분해해 놓는다.

종성이 냉장고 문을 열어 냉동실 안에 있던 생선들 중 한 마리를 들고 얼음을 챙겨 화장실로 들어간다. 화장실 들어가는 벽에 종성의 아내 련정희의 사진 액자가 걸려있다.
얼음으로 상처부위를 문지르며 화장실로 들어온 종성. 세면대에 냉동된 생선을 놓고 뜨거운 물을 튼 뒤, 셔츠를 벗는다.
뜨거운 물에 생선이 녹는 동안 화장실 선반에서 구급약을 꺼내 대충 소독하는 종성.

상처가 난 등에 손을 대지만 손이 닿질 않는다. 이내 포기하는 종성.
생선이 녹자 생선에 손가락을 넣어 그 안에 숨겨놓은 주사기와 주사약을 꺼낸다.
주사기에 약품을 넣고 자신의 팔뚝에 주사를 놓는 종성. 이 위로 들리는,

리학수 (소리)
실수 없던 네가 무슨 꼴이네?

42. 한적한 공원 (Riga) - 실외/낮

종성과 리학수가 인적이 드문 공원을 걷고 있다.

리학수
그놈이 네 면상까지 확인했담서?

표종성
소멸시킬 경우, 그쪽이 우리한테 씌우려는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걷는 리학수. 표정이 어둡다. 이 위로-

청와대 조사관 (소리)
영사관, 대사관 뿐 아니라 청와대까지 발칵 뒤집힌 거 아시죠?

43. 국정원 위장 사무실 - 실외,내/낮

인서트. 베를린 항공촬영 이미지. 이 위로-

청와대 조사관 (소리)
...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이러저런 일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장 사무실 앞. (Riga)
평범한 건물 앞에 한국 차량이 들어선다.

근데 문제는 총격 사고예요.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위장 사무실 복도. (Riga)
세황이 머리에 얼음주머니를 대고 복도를 걸어 들어온다.

예컨대 천세황 요원 보고서대로 상대가 설령 북한 보위부 요원이 었다 해도, 국제법상 모든 것이 우리한테 불리하게 돌아가요.

위장 사무실.
청와대 조사관과 강민호가 위장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화면만으로는 현장에서 북한이 불법 무기 거래를 했다는 걸 증명 할 수도 없고...

분석실.
분석관이 강민호의 방 내부 상황을 모니터하고 있다.
강민호의 방에서 강민호와 청와대 조사관이 세황을 마주 앉혀놓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청와대 조사관은 현장 상황이 녹화된 파일 화면을 보고 있는 중이다.

그럼 결국 아무 증거도 없이 우리 쪽에서 먼저 위협한 게 되는 거잖아요?

강민호의 방.
출력된 표종성의 사진자료를 보고 내려놓는,

청와대 조사관
이렇게까지 무리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세황이 입을 다문 채 시선을 피한다. 썰렁한 상황에 끼어드는,

강민호
저희 베를린 지부에서는...

청와대 조사관
강 부장께 질문한 게 아닙니다.

강민호가 천세황에게 답하라고 눈짓을 보낸다. 떨떠름하게 말을 받는,

천세황
김정일이 죽기 직전에 마카오에서 유럽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40억 달러 규모 비자금 계좌를 추적하는 중이었습니다.

강민호
(재빨리 끼어들며)
3억 달러 정도면 북한 1년 치 식량난이 해소되니까, 그 규모면 최소 10년 이상의 식량난이 해결되는 규몹니다. 그 계좌를 찾으

면 다른 국가들의 대북 원조 키를 우리가 쥘 수 있는 거죠.

청와대 조사관
(민호의 말에 관심을 보이며)
김정일 비밀계좌와 무기거래가 무슨 상관이죠?

강민호
(조사관 앞으로 다가와 파일의 관련 페이지를 펼쳐주며)
김정일이 죽은 뒤 군부에서 자금줄을 새로 트기 위해 중동 군소 테러단체들 상대로 재래식 무기거래를 키운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플래시 백, 유럽벌판. (Riga) 낮
아심과 압둘이 이끄는 테러조직이 구형 AK 소총들이 담긴 상자들을 트럭에 옮긴다.
표종성과 동명수의 호위를 받는 북한 군부 '동중호'가 이를 보고 있다. 이들 사이에 유리가 있다.

여기엔 러시아 군부 출신 마피아들이 브로커로 끼어 있구요.

플래시 백, 은행가 풍경. (현재와 다른 계절. Berlin) 낮
바쁘게 은행주변을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리학수와 여비서가 은행을 출입한다.
길 건너 세황이 이들을 살피며 사진을 찍는다.

브로커가 낄 경우 현찰 거래보다 계좌 세탁을 선호하게 되는데, 그럼 거래는 유럽의 특정 은행계좌를 거쳐야 됩니다.

플래시 백, 고급 레스토랑. (현재와 다른 계절. Riga) 낮
리학수와 독일 정치인 지그문트, 련정희가 식사를 하고 있다.
리학수 일행 주변 테이블에 앉은 천세황이 선글라스 반사로 리학수 일행을 몰래 살피고 있다.

그 무기거래 계좌를 추적하면, 역으로 베를린 공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김정일의 비자금 계좌 선까지 밟을 수 있다는 게 제 밑그림이었습니다.

서류를 책상에 툭 던지는,

청와대 조사관
어쨌건 이런 것들은 추정이고 정황이네요? 정보는 어딨는 겁니까? 정보.

강민호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천세황

사람이 다쳤는데, 괜찮냔 말 한마디 없이 치료도 못 받게 사람 붙잡아 놓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거기 보고서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강민호

(세황에게 버럭)
지금 뭐하는 겁니까!

청와대 조사관

아, 아, 됐습니다. 됐어요...

분석관이 카메라를 통해 보이는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다.

청와대 조사관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김정일 사망 후 외교적으로 살얼음판 위에 있는 상황이에요.
(강민호를 지나치며)
지금 보고된 내용대로라면 이건 단순히 40억불짜리 계좌가 아니라 핵입니다, 핵. 6자 회담 테이블에서 우리가 매번 숨통을 잡혔다면, 이걸로 우리가 상대국 숨통을 쥐락펴락 할 수 있겠죠.
(세황 옆에 다가서서)
지금부터 두 주 시간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러시아 순방외교 가시기 전에 우리 손에 들어와야 돼요. 시간 안에 찾아내세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얼마든지 묻을 수 있습니다.

44. 한적한 공원 (Riga) - 실외/낮

종성과 함께 계속 걸으며 말을 잇는,

리학수

유리는 미국 놈들이 추적하던 무기 브로커니까 남조선 놈들이 꼬리잡기가 수월했을 테고... 아심도 반미투쟁을 하는 친구라 이스라엘보다는 미국 놈들이 치고 들어왔어야 말이 돼...

표종성

셋 중 하나에서 정보가 샌 겁니다.

리학수

러시아 놈이 이스라엘에 팔렸거나, 아랍 놈이 모사드 이중간첩이 거나, 그도 아니면...

표종성

우리 쪽에서 흘렸겠죠.

리학수

(걸음을 멈추고)
어이, 표종성이...
(종성을 조용히 돌아보고 있다가 갑자기 버럭)
정신 차리라!
(고개 든 종성과 눈을 마주치자 한숨을 내쉬고 감정을 추스르며)
종성아... 내 말 잘 들으라. 평양서 지금 누가 오고 있는지 아네?

45. 베를린 행 열차 (Riga) - 실내/낮

인서트. 베를린을 향해 가는 국제열차 항공촬영 이미지.

리학수 (소리)

동명수가 오고 있다...

약식 로만컬러의 선교사 차림으로 위장한 동명수가 기차 칸을 옮기며 자리를 찾아간다.

리학수 (소리)

종성이 네가 나와 있는데도 보위감찰원을 보내는 이유가 뭐갔네?

46. 한적한 공원 (Riga) - 실외/낮

어두운 표정의 종성을 보고 말을 잇는,

리학수

평양서 우릴 못 믿고 있다는 기다... 김정은 대장동지 체제서 외국 공관들은 특별 관리대상이 됐어. 천하에 인민영웅 표종성이도 감시대상이 됐단 기야. 조심하지 않으믄...

표종성

(다시 발길을 돌리는 리학수의 뒤에 대고)
대사 동지... 제가 뭐하는 사람인지 잊으셨습니까?

리학수

(종성을 돌아보며 어이없다는 듯)

... 너... 지금...

표종성

(차갑게)

오늘 대사 동지 발언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리학수

... 넌 기껏 날 감시대상으로 밖에 안 보네?

표종성

(무심하게 리학수를 두고 가며)

대사 동지 약해진 모습 보기 안 좋습니다.

리학수가 멀어져가는 종성을 보며 한숨을 쉰다.

47. 베를린 행 열차 (Riga) - 실내/낮

자리를 찾아가던 명수 뒤로 깔끔하게 차려입은 백인 청년이 열차 칸을 나온다.
주위를 살피고 명수 뒤로 따라붙는 백인 청년. 좁은 통로에서 명수를 지나쳐 간다.
짧은 시간 동안 좁은 통로에서 부대끼는 두 사람. 백인 청년이 인사하고 화장실 쪽으로 간다.
백인 청년을 보내고 문을 여는 명수. 들어가려다 멈춘다.
명수의 배낭 아래가 찢어져 있다.

48. 열차 화장실 (Riga) - 실내/낮

명수와 부딪쳤던 백인 청년이 명수에게서 소매치기 한 손가방을 꺼내 내용물을 확인한다.
명수의 사진이 붙어있는 일본여권과 현찰들. 여권이 더 나오는데 미국과 중국여권이다.
다양한 명수의 사진이 붙은 세 개의 여권을 보고 피식 웃음을 흘리는 백인 청년.
현찰과 여권만 빼고 나머지는 밖에 버리려는데, 덜컥-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린다.
백인 청년이 돌아보면, 명수가 화장실로 들어온다.
놀란 백인 청년이 명수에게 대드는데,
퍼벅! 명수가 백인 청년의 급소를 치고, 재빨리 만년필 독침을 빼 백인 청년의 목에 독침을 툭- 꽂아 넣는다.
순간, 맥없이 변기에 주저앉는 백인 청년.
명수가 밖을 살핀다.
백인 청년의 몸이 고통스럽게 마비되기 시작한다.
침착하게 자신의 돈과 여권을 챙기는 명수.

입에 거품을 물고 파르르 떠는 백인 청년의 피부가 까맣게 변해가고-
명수는 백인 청년의 죽어가는 모습을 무심하게 바라보며 그의 현찰과 소지품까지 챙긴다.

인서트. *고속열차가 베를린 도심 안으로 들어선다. (항공촬영 이미지)*

49. 고향 식당 - 실내/밤

인서트. *강민호가 식당 건너편에 차를 세우고 길을 건너 식당으로 들어간다. (Berlin)*

강민호 (소리)
형님, 참... 한국 식당 다니지 말라니까...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세황 앞에 강민호가 다가가 앉는다.
국을 뜨다 만 채 자리에 앉는 민호를 보는,

천세황
야이... 새끼야... 내가... 오늘 생일이라... 여기 한인회 그림자도 안 비치는 식당 찾아와서 미역국 좀 끓여달라고 했다. 이것도 보고서 써서 제출해야 되냐?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담배 꺼내 무는 민호를 보며)
여기 금연이다.

강민호
제대로 카바 못해줬다고 삐졌어요?

천세황
욕심낼 걸 내. 이거 본사 연락해서 판 제대로 다시 짜야 돼. 우리끼리 숨차서 안 된다.

강민호
(세황 입가에 묻은 음식물을 보고 냅킨을 건네며)
이 바닥이 몸 사린다고 사려지는 동넵니까? 어차피 때는 묻어요. 그리고 본사에서 판 다시 짜면 우린 어떻게 되는데요? 기껏 밥상 다 차려놓고 수저는 엄한 놈들한테 넘겨?

천세황
... 현장 깽판 친 애들은 확인했어?

강민호
애들이 녹화된 화면으로 안면인식하고 있는데, 그건 시간 좀 걸

릴 것 같고...

천세황

(수저 내려놓으며)
일단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6자회담 당사국 쪽 애들 다 해당 사항 없지? 그럼, 이북 놈들 무기거래 하는 거 지네 동네에서 제일 피곤해할 애들이 누구야?

강민호

이스라엘?

천세황

(맞췄다는 듯 손가락을 탁- 튕기고)
이스라엘 모사드 애들까지 낀 판이면? 그림 안 그려져? 너 이 판 감당할 수 있어? 거기다 이번 빨갱이 뉴페이스는 어디 명단에도 없는 고스트야. 에이스들 국제 경기다. 월드컵 4강전에 조기축구 멤버 투입시켜서 뭘 어떡할래?

강민호

우리가 왜 조기축구 멤버에요? 저 형님 땜에 상투 틀어 올린 놈이에요. 이걸로 저 미국 공사 발령 받으면, 형님도 숨통 트이실 거 아닙니까. 빨갱이 몇 마리만 쫓아서 보고서 몇 장 올리면 인생이 바뀌는 데 뭘 고민해요? 눈 딱 감고, 제가 카바할 테니까 형님은 저만 믿고 레이스 하세요. 형님이나 저나 앞으로 이런 기회가 몇 번이나 오겠습니까?

세황이 물로 입안을 행구며 한숨을 내쉰다.

50. 표종성의 집, 작업 방 - 실내/밤

모니터로 웨스틴 호텔 보안 사이트를 해킹해 보안 창을 뚫는 것이 보인다.
종성이 모니터 앞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며 작업을 하고 있다.

모사드 요원들과 천세황이 호텔 보안 카메라에 잡힌 모습들이 모니터에 흐른다. (Riga, Berlin)

자료를 다운받는 동안 옆의 모니터를 살피는 종성.

옆 모니터에 대사관 직원들의 낮 시간 근무 모습이 흐르고 있다. 리학수와 여비서, 그 외 직원들과 련정희도 보인다. (Riga)

벌컥벌컥 보드카를 마시고, 딱딱한 빵을 씹어 먹으며 모니터를 보는 종성. 우걱우걱- 종성이 안면근육을 움직이자 상처치료 붕대 테이프가 살짝 떨어진다.

51. 고급 레스토랑 (Riga) - 실내,외/밤

리학수와 련정희가 식당으로 들어와 옷을 맡기고 있다.
정희가 유창한 독일어로 예약 테이블을 확인하고 레스토랑 여직원의 안내를 받아 계단을 오른다.

련정희

먼저 와 있답니다.

리학수

(시계를 보며)
하여간 독일 놈들... 저 놈들이 여기서 보자 했으니 오늘 식비는 저쪽 계산이지?
(정희를 돌아보고)
내가 외부 사람 만날 땐 반지 빼고 만나라 하지 않았나?

련정희

(황급히 손에서 반지를 빼며)
죄송합니다.

리학수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말 전달만 잘한다고 통역 잘하는 게 아니야.

계단을 오르자 레스토랑 여직원이 예약된 테이블을 가리킨다. 예약된 테이블에 앉아있던 독일 정치인 지그문트가 학수와 정희에게 손짓을 해 보인다.

인서트, 레스토랑 뒷골목. (Riga) 밤
뒷문을 열고 나오는 레스토랑 여직원. 주위를 살피고 벽을 보면, 벽에 분필로 시간과 장소가 적힌 암호가 보인다. 손으로 분필을 지운 뒤, 슬쩍 골목을 내다보는 여직원. 골목 구석에 있던 세황이 여직원과 눈을 마주친다. 여직원이 들어가자 세황도 골목 저편으로 사라진다. 이 위로-

지그문트 (독일어 소리)

지난달, 오스트리아에서 북한 외교관들이 담배 밀수를 하다가 적발된 일이 의회에서 거론되고 있어요.

세황과 접선했던 여직원이 그릇을 치우다 포크를 떨어뜨린다.
당황하며 포크를 주우러 숙이는 여직원이 테이블 아래 설치된 소형 마이크를 확인한다.

리학수

오스트리아에서 벌어진 일을 왜 독일 의회에서 문제 삼나? 아까 설명했잖아. 문서상 착오가 있었던 거라고...

여직원이 치운 그릇을 가지고 빠져나간다.

련정희

주변국에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쪽 의약품 원조나 공작 기계 지원에 대한 의회비준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답니다.

정희가 통역하는 동안 지그문트는 정희를 훑어본다.

리학수

(지그문트를 보고 웃으며)
없는 살림에 뱃대지에 기름칠해 줬더니 고작 그따구 소리나 하고 자빠졌네?...

련정희

독일 정부는 확실한 약속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밀수품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학수가 정희를 살피는 지그문트의 끈적거리는 시선을 보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다.

지그문트 (독일어)

그래, 난 의회를 설득할 근거가 필요한 것뿐이에요. 이쪽 일이 그렇잖아요. 모든 일에 기록이 중요하니까...

정희가 통역하려는데, 이를 끊고 말하는,

리학수

... 잿밥 얻어먹을라구 제사한번 거하게 차리누만.
(무슨 말인지 몰라 당황하는 정희를 슬쩍 본 뒤 미소와 함께 와인 잔을 만지며)
개새끼... 밝히기는...
(눈은 지그문트를 향한 채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정희에게)
접대하라.

련정희

!.....

리학수

(지그문트에게 미소를 던지며)
저 놈이 민간사절을 원한다.

지그문트가 련정희를 보고 와인 잔을 들어 보인다. 이 위로 트램 소리가 겹친다.

52. 도심 트램 (Berlin) - 실외,내/밤

프리드리히 스트라세 트램 정거장에 천세황이 서있고, 그 뒤로 트램이 오고 있다.

세황이 신문을 들고 트램 뒤쪽에 앉아있는 레스토랑 여직원을 향해 간다.
여직원 맞은편에 앉는 세황. 자기 옆자리에 핸드백이 놓여있자, 맞은 편 여직원 옆자리에 신문을 슬쩍 둔다.
여직원이 세황이 놓은 신문을 슬쩍 보며 안에 있는 현찰을 확인한다.
자기 옆 자리에 놓인 핸드백 안에서 소형 녹음기와 이어폰을 꺼내 확인하는 세황.
녹음 내용을 확인한 세황이 녹음기를 빼내고 새 녹음기를 핸드백에 넣는다.
여직원이 신문에서 현찰 뭉치를 꺼낸다.

다음 정거장에 세황이 내린다. 앞쪽 좌석에서 신문을 보고 앉아 있던 누군가가 신문을 내리고 주변을 살펴보는데... 동명수다.

53. 레스토랑 여직원의 집 앞 (Riga) - 실외/밤

여직원이 집 열쇠로 문을 여는데, 뒤에서 들리는-

동명수 (독일어 소리)

오랜만이야.

여직원 (독일어)

(뒤에 동명수가 서있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반갑게)
헤이... 갑자기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동명수 (독일어)

(안으로 들어가며)
들어가서 얘기할까?

조용한 집 앞 골목풍경. 몸이 불편한 노파 하나가 힘겹게 여직원 집 앞 길을 걷는다.
이 뒤로- 비명소리와 함께 추락하는 소리. 퍽-! 뭔가 빠개지는 소리가 골목 안에 울려 퍼진다.
노파가 돌아보면, 추락한 여직원의 모습이 보인다.

동명수가 여직원 집 문을 쓰윽 열고 나와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노파를 힐끗 보고 길 저편으로 사라진다.

54. 표종성의 집 - 실내/밤

표종성이 작업 방을 나오는데, 식료품 봉투를 들고 현관으로 들어오는 련정희를 본다.

련정희

(멈칫하며)
아직 안 잤습니까?

표종성

(벽시계를 힐끗 보고는 무심하게)
늦었다. 피곤할 텐데 씻고 자라.

정희가 침실로 들어가는 종성을 본다.

욕실.
쏴아- 정희가 샤워를 하다 멈추고 쏟아지는 물을 맞는다.

플래시 백, 고급 레스토랑. (Riga) 밤
정희에게 명령하는,

리학수

접대하라.

지그문트가 느긋하게 정희를 보고 있다.

욕실.
정희가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으며 조용히 몸을 씻는다.

욕실을 나오는 정희. 종성은 등 돌리고 식탁에 앉아 보드카를 마시고 있다.
그 뒤로 다가 서다 종성의 귀 상처와 셔츠 등 쪽에 난 핏자국을 보는,

련정희

들어가서 상처 치료하시죠.

표종성

버틸만 하다.

련정희
... 아직... 평양서 연락 없습니까?

표종성
... 무슨?

련정희
... 우리 돌아갈 때가 훨씬 지났는데...

표종성
우린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지.

련정희
귀국 신청은 할 수 있잖습니까?

표종성
(한숨을 내쉬고는)
대사관 동지들... 자아비판 시간 가진지 얼마나 됐나?...

련정희
(서운함을 참아내며 차갑게)
왜 그러는지 먼저 한 번 물어봐 주면 안 됩니까?
(체념)
... 제 생각이 잘못됐나 봅니다. 당신이 내 남편이기 전에 공화국 인민영웅 동지라는 걸 빼먹었습니다. 먼저 잡니다.

정희가 침실로 들어간다. 종성이 남은 보드카를 들이킨다.
침실로 들어온 정희가 등 돌리고 침대에 눕는다. 정희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럽지만 참는다.

55. 셀프 세탁소 (Berlin) - 실내/낮

세황이 빨래를 돌리며 신문에 실린 레스토랑 여직원의 투신자살 기사를 보고 있다.
이 뒤로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의 백인 마티가 세탁물을 들고 들어온다.
세탁기에 빨래 집어넣는 마티 위로-

천세황 (영어 소리)
... 우리도 새로운 접선방식 좀 개발하자.

마티 (영어)
(세탁물을 넣고 의자에 앉으며)

새로운 거 타령 하던 놈들 치고 오래 가는 놈들 못 봤다. 우리 같이 옛날 방식 쓰던 놈들은 버티고 있잖아?

천세황 (영어)
(건조가 끝난 자신의 빨래를 들고 앉아 신문 건네며)
옛날 타령 하지 마. 진짜 옛날 사람 같잖아.

마티 (영어)
우리가 옛날 사람이지 뭐, 요즘 애들이야?...
(세황이 건넨 신문을 보며)
이것 땜에 보자고 했어?

레스토랑 여직원의 투신자살 기사 클로즈업.

천세황 (영어)
(빨래 더미를 의자에 내려놓으며)
6개월 전에...

플래시 백, 고급 레스토랑 앞. (현재와 다른 계절. Riga) 밤
리학수와 련정희가 들어간다.

한국 유학생 하나가 자기 아르바이트 하는 식당에 북한 대사관 사람들이 단골로 온다고 제보해 왔어.

플래시 백, 국정원 위장 사무실. (현재와 다른 계절) 낮
분석관과 강민호, 천세황이 제보전화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확인해보니 내용은 사실이었지만 제보자는 못 찾았지.

플래시 백, 고급 레스토랑. (현재와 다른 계절. Riga) 낮
천세황이 앉아있고, 죽은 식당 여직원이 천세황의 테이블을 서빙한다.

죽은 친구는 제보자 대타로 우리가 포섭했던 식당 직원이야.

마티 (영어)
뭐가 문제지? 너무 힘들게 몰아붙였던 거 아냐?
(세황이 개는 빨래를 챙겨 같이 개주며)
우리 CIA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 세포요원들만 모아도 웬만한 정보국 하난 꾸릴 걸?

천세황 (영어)

(주섬주섬 빨래 개며)
이틀 전, 러시아 무기 브로커 유리하고, 아랍 테러리스트 아심이 키드냅 된 거 알고 있지?...
(마티가 설마하며 돌아보자)
그 현장에 나도 있었어.

마티 (영어)
뭐?... 내가 진짜 돌겠다... 우리가 그 아랍 놈 조직 쫓느라 얼마나 애먹는지 알면서 나 엿 먹이려고 작정했어?

천세황 (영어)
(마티가 갠 양말이 마음에 안 들자 다시 풀어 양말을 개며)
나도 굉장히 촉박하게 움직였어. 거기 있던 빨갱이 놈만 잡으면, 나머지는 너희 회사 쪽으로 넘겨주려고 했다고. 그런데 엉뚱한 놈들이 이미 정보를 다 꿰고 먼저 치고 들어온 거지.

마티 (영어)
어디 애들이야?

천세황 (영어)
추적 중인데 정황상 모사드라고 봐.

마티 (영어)
모사드 애들이 너희 쪽하고 공조 없이 북한 애들 거래를 쳤단 거야?

천세황 (영어)
작년에 북한 핵물리학자가 이란으로 넘어간 정보를 자기네들한테 안 알려 준 것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아. 이스라엘 입장에선 직접적인 당사자들인데 기분 나쁘다 이거지.

마티 (영어)
(눈치 없이 계속 세황의 빨래를 개며)
근데? 그게 세포가 자살한 거 하고 무슨 연관이야?

천세황 (영어)
시점이 너무 절묘하잖아. 우연이 반복되면 의심해야지.

마티 (영어)
난 지금 너희 땜에 뒤통수 맞은 걸로 충분해. 뭐 부탁할 생각...

세황이 USB를 꺼내자 반짝하며 보는 마티.

천세황 (영어)

죽은 세포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넘겼던 물건이야. 어제 저녁, 지그문트라는 개발원조부 차관이 북한 대사하고 만난 녹음내용. 마지막 부분에 북한 대사가 통역관으로 보이는 여자에게 접대를 하라고 해. 정황상 은밀한 접대가 이뤄진 것 같고. 우린 다 아는 내용들이라 별 쓸모없지만, 자기 쪽에서는 언제고 정치적으로 쓸일 있지 않겠어?...

마티 (영어)

... 너무 비싼 거 요구하지 마. 나 이번 달 말이면 돌아가. 이제 겨우 집에서 마누라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살 수 있다고.

천세황 (영어)

(자리에서 일어나며)
CIA 쪽 대북정보 창구 좀 열어 줘. 중동, 러시아, 중국, 뭐 다 좋으니까 북한하고 관련된 정보면 뭐든지. 이혼당하고 혼자 사는 옛날 친구한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자신의 빨래에서 나온 여자 브래지어를 꺼내 보이며)
가질래?

56. 오펜바움 다리 (Berlin) - 실외/낮

인서트. 오펜바움 다리 위로 전철이 지나간다.

북적대는 인파 속에서 관광객으로 위장한 동명수가 등장한다.
사람들 틈에서 관광 지도를 펼치고 서있던 리학수가 동명수를 발견한다.

리학수 (소리)

생각보다 늦게 왔구만.

사람들 틈에 섞여 리학수와 함께 걸으면서 대화하는,

동명수

도착하자마자 해결할 일이 있었습다.

리학수

위에선 특별한 얘기가 없었는데?

동명수

(카메라를 조작하며)
보시믄 왜 그랬는지 아실 겝니다.

다리 귀퉁이로 들어가는 두 사람. 지나는 사람들의 시야에서 벗어난다.

리학수

우리 땐 명령이 상충되는 법이 없었지... 목소리가 늘 하나였어.

동명수

요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새 지도자 동지도 옛날 방식 별로 안 좋아하고.

카메라 동영상 화면을 켠 명수가 이어폰을 연결해 학수에게 건넨다.

화면 속 고급 레스토랑. (Riga) 밤
리학수와 지그문트 일행이 나온다. 리학수가 정희를 지그문트의 차에 태운다.

주위를 경계하며 긴장된 모습으로 다음 화면을 보는 리학수.

화면 속 고급 레스토랑 뒷문. (Riga) 밤
리학수 테이블을 담당했던 여직원이 뒷문으로 나온다.

동명수 (소리)

그 친구 얼굴 기억하죠?

리학수

여기 단골이니까. 독일 친구들이 좋아해서...

화면 속 고급 레스토랑 뒷문. (Riga) 밤
분필 암호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레스토랑 여직원과 골목에서 이를 지켜보고 사라지는 세황의 모습이 위쪽에서 몰래 찍은 구도로 보인다.

동명수

독일 친구들 말고 남조선 친구들도 좋아함다.

화면 속 트램. (Berlin) 밤
레스토랑 여직원과 세황이 신문을 주고받는 모습이 흐른다.

충격 받는 리학수. 하지만 동명수를 힐끗 보고 침착하게 계속 화면을 응시한다.

화면 속 레스토랑 여직원의 집. (Riga) 밤
눈물로 범벅이 된 여직원이 벌벌 떨고 있다.

동명수
평양선 베를린 지부에 구멍이 뚫렸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하는데, 리학수가 화면 속 레스토랑 여직원이 뱉는 말을 듣고 충격을 먹는다.

리학수
...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동명수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건 항상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니요?

리학수
그 친구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당에 고발했나?

동명수
기록은 남겼습다. 하지만 제가 조사해서 밝히는 것보다 대사동지가 직접 밝히는 게 낫지 않갔습니까?

리학수
... 시간은?

동명수
이틀이요.

리학수
증거가 나오지 않으믄?

동명수
당에서 재촉하겠죠.

리학수
벌써... 당이 지목한 건가?

동명수
아시잖슴까. 증거가 나오지 않으믄...
(학수와 눈을 마주치고)
당의 판단이 잘못된 게 됨다.

(자리에서 움직이며)
준비가 되건 안 되건 이틀 뒤에 찾아갑니다.

홀로 남아 카메라 속 동영상을 다시 보는 리학수.

화면 속 레스토랑 여직원의 집. (Riga) 밤
취조당하는 레스토랑 여직원의 모습 위로,

동명수 (독일어 소리)
다시 한 번 말해봐. 정보를 팔아넘긴 게 누구라고?

레스토랑 여직원 (독일어)
... 대사관... 통역하는... 여자... 련정희란 이름으로 예약하는...

동영상 화면 안의 명수가 레스토랑 여직원 앞으로 다가서서 사진을 보여준다.

동명수 (독일어)
사진에 있는 이 여자가 확실해?

레스토랑 여직원이 고개를 끄덕인다. 명수가 화면 쪽으로 고개를 돌려 사진을 보여준다. 화면 포커스가 사진에 맞으면, 사진 속 련정희가 뚜렷하게 보인다. 이 위로-

리학수 (소리)
남조선 세포 노릇을 하던 식당 종업원 년이 자백했다.

57. 보위부 비밀가옥 (Riga) - 실외,내/저녁

허름한 건물을 향해 종성이 걸어간다.

표종성 (소리)
... 아니란 거 아시잖습니까.

저벅저벅 오래된 나무 계단 위를 걷는 종성.

리학수 (소리)
동명수가 자백을 위조했다는 거네?

비밀가옥 안 통로로 들어오는 종성.

표종성 (소리)

그건 모르는 일이죠.

썰렁한 공간. 카메라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는 종성을 앉혀 놓고 창밖을 바라보는,

리학수

네 마누라 일도 모르는 일이다. 사람 일이잖니...

명수의 카메라 화면에 레스토랑 여직원의 증언내용과 련정희의 사진이 흐른다.

표종성

(흔들리며)
... 시간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리학수

이틀...

잠시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리학수

자백이 위조됐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보위부에서 파견한 요원이 공식적으로 남긴 증거자백에서 네 마누라 이름이 나왔어. 그것도 평양에서 확인하고 싶어 하던 이름이 확인이 된 거야. 당이 유죄라는데도 네가 정희를 보호한다면... 너도 유죄다...
(생각하는 종성을 보며)
정말... 아무 낌새 없었니?

표종성

(깊이 생각하다)
... 별다른 거 없었습니다.

리학수

네가... 아랍 애들 거래정보가 모사드 쪽으로 샜던 게 우리 쪽일 수도 있다고 했었잖니... 내 위치에선 항상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니면 대안이라도...

표종성

자백 말고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리학수

원래 그릇하고 여자는 바깥으로 돌리면 기쓰나는 법이야...

종성을 홀로 남기고 떠나는 학수. 종성이 한숨을 쉬며 마른세수를 한다.

58. 북한 대사관, 리학수의 방 (Riga) - 실외,내/밤

인서트. 불 꺼진 북한 대사관 건물 외경. 3층 대사 방 불이 켜진다. 이 위로-

여비서 (소리)
그만 뒤척이고 눈 좀 붙이시죠.

여비서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리학수가 스탠드 불 옆에 앉아있다. 자리에 누운 채 말을 잇는,

여비서
내일 아침에 저 은행업무도 처리해야 합니다...
(리학수가 담배를 꺼내 물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러면 잠을 더 못자요... 그러지 말고...

리학수
(불을 붙이려다 말고)
니가 내 마누라라도 되나?

여비서
(리학수의 서슬 퍼런 목소리에 몸을 일으키며)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리학수
말 섞고 살 섞어 줬다고 착각하지 말라. 내 마누란 평양에 있어.
넌 그냥 비서야. 앞서지 말라.

놀란 여비서. 잠시 당황한 채 리학수를 보는데, 신경질이 나 담배를 집어던지는,

리학수
평양에 남편 두고 나와서 화냥질이나 하는 년이 감히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꼴 보기 싫으니 네 방 가서 자라!

인서트, 복도.
낡은 속옷 차림으로 방안에서 쫓겨난 여비서가 터벅터벅 스웨터를 걸치며 복도를 걷는다.
앙상한 여비서의 뒷모습이 애처롭다.

리학수가 벽에 걸린 지그문트, 련정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본다. 이어서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있는 가족사진을 보고 긴 한숨을 내쉰다.

59. 표종성의 집 - 실내/밤, 아침

종성이 침대에 누워 옆에서 자고 있는 정희를 보고 있다.
잠을 청하지 못하는 종성.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창을 연다. 시원한 바람을 맞은 종성이 정신을 차리고 정희를 돌아본다.
정희는 등을 돌린 채 뜬 눈으로 누워있다.

시간 경과. 아침.
정희가 아침을 차리다 멍하게 서 있다.
종성이 이런 정희의 모습을 빤히 쳐다본다.

조용히 밥을 먹는 두 사람. 이들 뒤로 창 너머 활발하게 펼쳐지는 평범한 가정들의 일상적인 아침 소리가 새어 들어온다.

표종성
요즘... 일은 어떤가?...

련정희
... 똑같죠 뭐... 갑자기 일은 왜 묻고 그럽니까?...
(종성이 좋아하는 반찬을 그 앞으로 밀어주며)
상처 그대로 두면 깊어집니다. 간호사라도 준비 시킬까요?

표종성
놔두라... 저번에 한말... 평양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랬나?

련정희
그 얘긴 그만 하죠.

표종성
... 난... 우리가 가난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다...

정희가 종성에게 뭔가 들킨 듯 식사를 멈춘다.
식사를 마친 종성이 물을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60. 북한 대사관 (Riga) - 실내/아침

대사관으로 출근하는 정희. 작은 방을 지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다.
정희가 자기 책상으로 가면, 뒤편 환기구에 숨겨진 소형 카메라가 보인다.

벽에 걸린 액자 뒤에 숨겨진 감시 카메라가 정희를 찍고 있다.

어둡고 좁은 기계실.
퀭한 얼굴의 표종성이 헤드폰을 끼고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다.
모니터에는 대사관 안에 있는 정희가 나오고 있다. 사무실, 복도, 화장실 등... 정희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니터 안에 잡히고 있다.

61. 국정원 위장 사무실, 분석관 방 - 실내/아침

분석관 1의 모니터에 웨스틴 호텔 방과 복도 카메라에 찍힌 다간의 모습(Riga)이 나온다.
화면 확대된 다간의 얼굴이 흐릿하게 잡히고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이를 분석한다. 모니터 옆으로 인상이 일치하는 얼굴 후보들이 뜬다. 바쁘게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분석관 1 (소리)
독일 내 거주하는 인물 중에 85퍼센트 이상 일치하는 인물이 셋 나오는데요...

바쁘게 키보드 두드리는,

분석관 1
둘은 여러 신원확인 포인트가 있는데...

분석관 1의 모니터를 집중해서 보는,

천세황
거기, 여행사.

분석관 1이 클릭하자 여행사 사이트가 뜬다. 다간의 여행사 마크 클로즈업.

분석관 1
여기 대표는 사진기록이 별로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게... 문화교류 증진 표창 받을 때 찍힌 사진인데...

모니터 화면에 행사장 단체 사진 속에 조그맣게 찍힌 다간의 모습(Riga)이 뜬다.

천세황
오케이!

이때 세황이 분석관 1 옆에 둔 커피 잔을 쏟는다. “앗 뜨거!” 하는데, 세황의 전화벨이 울린다.
난리치며 전화를 받는 세황.

62. 프리드나우 주차장(Berlin)과 국정원 위장 사무실, 분석관 방 - 실외,내/아침

서류를 들고 차에서 내려 이동하며 통화하는,

마티 (영어)
뜨거운 거 관심 있어?

천세황 (영어)
(커피 쏟은 곳을 닦으며)
지금 길게 통화할 상황이 아니거든?

마티 (영어)
(서류를 살피며)
베를린 공관에 있는 북한인 한 명이 망명 요청을 해왔어.

천세황 (영어)
뭐? 미국으로?

63. 북한 대사관 앞 (Riga, Berlin) - 실외/낮

련정희가 북한 대사관 건물을 나간다. (Riga)

마티 (영어 소리)
아니, UN을 통해서 정치난민 신청을 하겠대. UN 난민 수용소를 통해서 제 3국으로.

사람들이 많은 프리드리히 스트라세 거리를 걷는 정희. (Berlin)

64. 국정원 위장 사무실 - 실내/아침

복도로 나오며 전화 받는,

천세황 (영어)
다음 접선은 언젠데?

세황이 통화하는 뒤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던 강민호가 세황을 본다.

65. 전철 역, 전철 (Berlin) - 실내/낮

프리드리히 스트라세 역. (Berlin)
련정희가 거리를 가로질러 전철역으로 향한다. 그 뒤로 정희를 쫓는 종성이 차도를 가로지르며 정희를 미행한다. (Berlin)

전철 안. (Berlin)
좌석에 앉아 이동하는 정희의 휴대폰이 울린다. 발신자를 확인하고 긴장하며 전화 받는,

련정희
이 시간에 어쩐 일입니까? 전화를 다 주고.

표종성
(옆 칸에 앉은 정희를 살피고 서서)
대사관에 갈 일이 있어서. 점심 했나?

련정희
밖에 잠깐 일이 있어서 나왔어요.

표종성
어디?

지상 정거장에 전철이 멈춘다. 사람들이 승하차 한다.

련정희
... 의회 도서관에 자료 찾을 게 있어서... 어떡하죠? 점심은 같이 못하겠는데...

사람들이 시야를 가리자 정희를 놓칠까봐 신경을 곤두세워 살피는 종성. 정희와 같은 칸에 탄 동양인 남자 한 명을 발견한다.

표종성
알겠소. 집에서 봅시다.

전화를 끊는 종성. 다시 어디론가 전화한다.

인서트, 북한 대사관. (Riga)
비서실에 있던 여비서가 비상통신 신호를 받자 기밀 통신실로 들어간다.

표종성 (소리)
모란봉 4639... 련정희 동지 외출신청 기록 좀 확인할 수 있소?

전철 안. (Berlin)
전철이 지하로 내려간다. 동양인 남자와 정희를 번갈아 지켜보며 통화하는 종성. 이 위로-

여비서 (소리)
... 기록된 바 없습니다.

지하 정거장. 전철이 정차한다. 문이 열리고 네 명의 검표원들이 승객들과 함께 차에 탄다.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본 뒤 노선표를 확인하는,

표종성
의회 도서관이 브란덴부르크 역이오?

정희가 문 쪽으로 이동한다.

여비서 (소리)
의회 도서관은 분데스탁 역이 가깝습니다. 연방 하원 청사 옆에.

종성이 동양인 남자를 보는데, 동양인 남자도 문 쪽으로 내리려고 이동한 상태다. 동양인 남자가 둘러 맨 가방과 옷을 자세히 살피는 종성. 전철이 출발한다.
손잡이를 쥔 동양인 남자의 정권에 굳은살이 박혀있고, 귀는 만두 귀다.
검표원들에게 검표 확인받는 종성. 문 앞에 선 정희를 살피며 통화한다.

표종성
브란덴부르크에 뭐가 있소?

66. 북한 대사관(Riga)과 전철(Berlin) - 실내/낮

북한 대사관, 기밀 통신실. (Riga)

여비서
거긴 대사관들이 있죠. 영국하고 미국 대사관들이 모여 있습다.

전철 안. (Berlin)
내리려고 문 앞에 서 있는 동양인 남자를 확인하는,

표종성
기밀통신이니 기록만 하시오. 보고는 내가 직접 하갔소.

북한 대사관, 기밀 통신실과 여비서 방 (Riga)
여비서가 전화를 끊고 일어난다.
기밀 통신실을 나오던 여비서가 외투를 입고 집무실에서 나오는 리학수를 본다.

여비서
외출하십니까?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는데...

대답하지 않고 싸늘하게 나가는 리학수.
여비서가 리학수의 손에 들려진 가방을 본다. 이 위로-

전철 안내방송 (독일어 소리)
이번 정거장은 브란덴부르크 역입니다.

67. 전철 지하 역 (Berlin) - 실내/낮

브란덴부르크(알렉산더 플라츠). (Berlin)
역에 도착한 전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린다. 정희가 전철에서 내려 출구 쪽으로 향한다.
동양인 남자도 정희가 향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 뒤를 툭 부딪치고 가는 종성.
동양인 남자가 종성을 슬쩍 보는데-
와르르- 동양인 남자가 둘러맨 가방 아래로 가방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진다.
종성이 걸어가며 손에 쥐었던 칼을 주머니에 넣는다.
검표원들이 동양인 남자를 둘러싸고 떨어진 짐 챙기는 것을 도와준다.
난처한 동양인 남자를 뒤로 한 종성이 출구를 향해 간다. 종성 너머로 계단을 올라가는 정희가 보인다.

68. 브란덴부르크(알렉산더 플라츠) 출구 (Berlin) - 실내/낮

사람들 틈에 섞여 정희를 따라 이동하는 종성.
복잡한 계단과 많은 사람들 틈에서 정희를 쫓아 움직이는 종성의 모습이 긴박하다.
앞서 가던 정희가 출구 갈림길에 이르자 주변을 살핀다.
정희가 종성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종성이 기둥 뒤로 슬쩍 몸을 숨긴다.
종성이 숨은 기둥 뒤로, 뒤쫓아 온 동양인 남자가 보인다. 종성은 정희와 동양인 남자 모두의 시야를 벗어난 위치다.
정희 역시 동양인 남자의 시선을 벗어나 이동한다.
종성과 정희가 보이지 않자 반대쪽 길로 이동하는 동양인 남자.
몸을 숨긴 채 정희를 살펴보던 종성이 다시 그녀를 추적한다.
출구 안내판에 미국 대사관 표시가 보인다.

69. 표종성의 집 - 실내/낮

우당탕- 집으로 들어온 표종성이 창문 커튼을 모두 가린 뒤 집안을 모두 뒤집는다.
컴퓨터를 뒤지고, 메모지에 연필로 칠을 해 메모 흔적을 찾고, 서랍을 열어 뒤집고,
벽을 살피고, 책들을 뒤지고, 액자를 열어 뜯어보고, 커튼 뒤를 살피고, 벽장을 살피고,
가구를 뒤집고, 침대를 찢어 매트리스 안을 뒤지고,
종이들을 풀어놓고 약품에 적셔 자외선 기계에 비춰보고,
세면대에 뜨거운 물을 틀어 수증기로 거울의 흔적을 찾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우편물에 자외선을 비쳐 내용물을 확인하고, 옷가지들을 풀어헤친다.
아무런 단서가 나오지 않자 머리를 싸매고 식탁 의자에 주저앉는 종성.
자신이 찍어온 카메라를 확인한다.
카메라 안에는 미국 대사관을 배경으로 거리를 걷는 정희의 모습이 동영상으로 보인다.
관광객으로 보이는 외국인이 정희에게 말을 거는 모습이 흐른다.
대화하는 부분을 계속 돌려보는 종성.
정희의 입 모양을 유심히 살피고 따라해 본다.
입 모양을 살피던 종성이 입 모양을 따라 정희의 대화내용을 메모한다.

다음... 접선은... 언제...

정희가 사람들 틈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삐이익-!
벨 소리가 들리자 긴장하는 종성. 현관 문밖을 덴탈 미러로 확인한다.
문밖에 동명수가 서 있다.
종성이 문을 열자 난장판이 된 집안으로 들어서는,

동명수

오랜만이오, 형님.

표종성

... 아직 이틀 안 됐잖아?...
(집안으로 들어가는 명수를 따라가며)
... 혹시 정희한테 추적 붙였었나?

동명수

(집안을 여기저기 둘러보며)
형수 문제로 온 게 아니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밖에서 그렇게 철저하던 사람이 집안 단속을 못해서...

표종성

뭔가 잘못된 거다.

동명수

(종성을 돌아보며)
공적으로 하는 말입니까?

표종성

……

안방으로 들어와 어질러진 옷가지 중에서 정희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집어 드는,

동명수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두고 봅시다. 형님이 실수할 일은 없고...
뭐이가 잘못됐다믄, 잘못 처리한 사람이 고발당하겠지.

표종성

(화를 누르며)
... 무슨 일로 왔나?

브래지어를 바닥에 툭 던지고 계속 집안을 둘러보며 무심하게 말을 뱉는,

동명수

엉뚱한 일이 하나 터졌는데, 제 일이 아니라서 제가 손대질 못해요... 망명을 시도하는 반동분자가 있습니다. 공관 사람이에요...

종성이 정희를 찍었던 카메라를 슬쩍 뒤로 숨긴 뒤 칩을 빼며 명수를 바라본다.

동명수

리학수 동지.

70. 도로 (Riga) - 실외/낮

바앙-! 표종성이 차를 몰고 도로를 질주한다. 흥분상태에서 운전하는 종성. 이 위로-

동명수 (소리)

오늘 리학수 동지가 대사관 금고에서 활동비를 모두 빼갔답니다.

71. 포츠다머 플라츠 (플래시 백, Berlin) - 실외,내/낮

역으로 향하는 건널목에 신호를 기다리며 서있는 리학수. 신호가 풀리자 횡단보도를 건넌다. 맞은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백인 남자가 리학수의 주머니에 핸드폰을 슬쩍 집어넣는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리학수. 휴대폰을 켠다.
휴대폰 화면에 “음성 확인 후 자동소멸”이란 글자가 영어로 뜬다.

휴대폰에 저장된 내용을 들으며 역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리학수. 이 위로-

마티 (영어 소리)
... 접선 후 암호 확인, 우리 측 암호, 비가 올 날씨네요. 대답, 접는 우산을 잃어버렸어요...

리학수가 휴대폰 내용을 들으며 지하철 역 안을 걷는다.
휴대폰 내용을 다 확인한 리학수가 휴대폰을 끄자, 휴대폰이 피식- 터지며 연기를 낸다.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는 안내방송이 나온다.
사람들 시선을 의식한 리학수가 연기 나는 휴대폰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역 뒤쪽으로 사라진다.
이 뒤로 쓰레기통에서 연기를 내뿜고 있는 휴대폰을 들어 올리는 누군가의 손. 여비서다.
재빨리 휴대폰을 분해해 안에 있는 칩을 확인하는 여비서.
배터리가 터져 주변이 녹아내리는 중에 칩은 약간의 손상만 입은 상태.
여비서가 칩을 빼내는데 성공한다. 이 위로-

동명수 (소리)
오 분도 안 걸리더만요. 살 섞었던 사람한테 등 돌리는 게...

72. 북한 대사관, 기밀 통신실 (플래시 백, Riga) - 실내/낮

여비서가 가져온 칩을 동명수의 호위요원이 복구하고 있는 가운데, 그 옆에 동명수와 여비서가 있다. 여비서는 멍하니 눈물만 흘리고 있다.
복구된 내용이 MP3에 저장되고 있다. 이 위로-

동명수 (소리)
접선 장소와 시간이에요.

73. 표종성의 집 (플래시 백) - 실내/낮

내용이 복구된 MP3를 표종성에게 건네는,

동명수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외국 나와 남 여편네랑 바람을 피우질 않나...

표종성이 MP3 플레이 버튼을 누른다.

74. 도로, 접선장소 가는 길 (Riga) - 실외/낮

끼이익- 거칠게 턴하며 들어오는 종성의 차.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상태로 운전하는 종성. 이 위로-

동명수 (소리)
거, 가족들 내팽개치고 서방으로 넘어갈 생각이나 하고 말이오...

종성이 거칠게 우회전 하며 큰 길로 나간다.

공화국 인민들은 새 대장동지 따라서 강성대국으로 가자고 외치는 마당에 대체 여기서 무슨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던 겝니까?

베를린 큰 도로로 들어선 종성의 차가 미친 듯이 달린다. (항공촬영 이미지)

75. 브란덴부르크 광장, 근처 건물 (Berlin) - 실외,내/낮

광장.
세황이 광장으로 들어와 신호등 앞에 선다. 앵벌이 소녀가 세황에게 다가가 “Do you speak english?"하자, 세황이 관심 없다고 손짓한다. 앵벌이 소녀가 세황을 지나친다. 그 옆으로 강민호가 쓰윽 다가온다.

천세황
뭐야?

강민호
(주위를 살피며)
이학수 확실해요?

천세황
내 전화 땄냐?

강민호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넘어온다면서요.

천세황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잖아.

강민호
순진하게 왜 이래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빠져계셔.

천세황
너 미쳤냐? CIA 애들 떡밥에 손대서 뭘 어떡하려고?

강민호
북한 대사가 왜 CIA 떡밥이에요? 우리 밥이지.
(세황의 전화벨이 울리자 길을 건너며)
걱정 말고 진행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천세황
너 미쳤어? 야, 야!

강민호가 세황을 무시하고 광장 옆 건물 쪽으로 사라진다. 당황하며 전화 받는,

천세황 (영어)
어, 거의 다 왔어.

광장, 미 대사관 앞 브란덴부르크 게이트.
건너편에서 세황과 통화하는,

마티 (영어)
혼자 오는데 왜 이렇게 늦어?

광장.
광장 안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며 통화하는,

천세황 (영어)
어?... 뭐가 늦어?...

마티 (영어)
개인적인 시간 만들어 달라며? 일단 우리 대사관으로 들어간 다음 안가로 이동할 거야.

세황이 마티가 있는 쪽으로 이동하며 곳곳에 대기하고 있는 위장요원들을 발견한다.

공식적으로 분석관들한테 이동 시간을 세 시간 후로 보고해놨으니까, 이동시간 포함해서 너한테 한 시간 정도 시간 줄 수 있어.

광장 지하철 역.
리학수가 전철역을 나오고 있다.

우리 회사 직원으로 위장해서 취조하는 걸로 하자고.

광장, 미 대사관 앞 브란덴부르크 게이트.
주변을 살피며 시계를 보고 통화 이어가는,

마티 (영어)
우리 일은 거기까지. 이후 문제는 알아서 해.

광장 근처건물.
건물 위에서 아래를 살피는 강민호. 위장요원들에게 뭔가 지시한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CIA와 너희는 공식적으로 이번 작전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야. 기록으로 남겨서도 안 되고.

통화를 하며 마티를 향해 가는,

천세황 (영어)
거래물건은?

마티 (영어)
아직 확실히는 몰라. 얼핏 파일 얘기는 들었는데, 그쪽에서 관리하는 무슨 계좌라고 들었어.

광장.
리학수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마티가 있는 곳을 향해 가는데, 사람들 틈에서 귀에 리시버를 꽂은 국정원 위장요원 2를 발견한다.
침착하게 방향을 트는 리학수. 중국인 관광객들 틈에 섞여 이동한다.

사람들 건너 마티를 발견하고 걸어가며 통화하는,

천세황 (영어)
마카오에서 이쪽으로 이동했던 김정일 계좌?

마티 (영어)
그럼 대박이고. 신세 꼭 갚아. 그리고 선물이 있는데...
(주머니에서 세황의 양말을 꺼내 보이며)
저번에 세탁소에서 네 양말이 내 주머니에 들어갔었나 봐...

리학수가 중국인 관광객 틈에서 나와 미 대사관 쪽으로 이동하려는데, 미 대사관 쪽 인도에 서있는 국정원 위장요원 1을 발견한다.
가방에서 서류를 찾는 척하며 허리를 숙이는 리학수. 인파 속에 묻힌다. 재빨리 주위를 살피다 지하철역을 향해 빠르게 이동하는 리학수.

광장 근처건물.
아래를 살피던 강민호가 지하철 쪽으로 이동하는 리학수를 발견한다.

강민호
안내양 떴다. 지하철 쪽으로 이동 중.

광장, 미 대사관 앞 브란덴부르크 게이트.
세황과 마주보고 있던 마티가 세황 뒤편에서 재빨리 움직이는 국정원 위장요원 3을 발견한다.
세황이 뒤를 돌아보자, 자신에게 따라붙었던 국정원 위장요원 3이 무전을 들으며 재빨리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다.
마티 역시 세황이 보는 곳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변수를 감지한다. 전화기에 대고 소리치는,

마티 (영어)
너... 혹시?...

세황이 마티를 보고 미안하다는 듯 손을 들어 보이고 전화를 끊고 지하철역 쪽으로 이동한다.
마티도 세황을 따라 욕을 하며 달린다.

리학수가 지하철역을 향해 이동하고 이 뒤로 국정원 위장요원 3이 따라붙는데, 길 건너편에 종성의 차가 도착한다. 리학수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지하철역을 향해 달리는 종성.

76. 브란덴브루크 역, 터널 비상계단, 터널 (Berlin) - 실내/낮

브란덴부르크 역.
리학수가 지하철역으로 내려간다.
리학수의 뒤를 국정원 위장요원 3이 따라붙는데, 그 뒤로 종성이 외투를 벗으며 나타난다.
리학수가 지하철역 코너로 돌아가자, 국정원 위장요원 3이 다급해져 계단을 빠르게 내려간다.
종성이 국정원 위장요원 3의 옆에 붙어 외투를 다시 입는 척 하며 파박-
국정원 위장요원 3은 발을 헛디딘 사람처럼 계단 아래를 구른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이를 본다.
종성이 아무렇지 않게 그 옆을 스치고 지나간다.

리학수가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서자 맞은편에서 들어오는 국정원 위장요원 1,2와 마주친다. 대형을 벌리며 리학수를 조이는 국정원 위장요원 1,2.
리학수가 발길을 돌리려다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국정원 위장요원 3과 그 옆으로 들어오는 종성을 보고 벽 쪽으로 붙는다.

리학수를 쫓는 국정원 위장요원 1,2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리학수를 향해 간다.
리학수가 벽 쪽에 위치한 터널 비상계단을 열고 들어간다.
국정원 위장요원 2가 리학수를 쫓아 비상계단 문을 여는데-
표종성이 들어와 지나는 사람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국정원 위장요원 2를 기습 공격한다.

터널 비상계단.
리학수가 비상계단 아래로 내려와 문손잡이를 돌려보는데, 잠겨있다.
마지막 손잡이를 돌리는 리학수. 터널로 향하는 문이 열린다.

브란덴부르크 역.
종성 뒤로 국정원 위장요원 1이 달려드는데,
종성이 국정원 위장요원 1을 기둥 뒤로 몰아붙여 역시 사람들 시선을 피해 기절시킨다.
종성이 비상계단 문을 열고 들어간다.

터널.
리학수가 필사적으로 터널 안을 달린다.

터널 비상계단.
비상계단을 뛰어 내려오는 종성. 리학수가 나간 문이 서서히 닫히고 있다. 종성이 치고 나간다.

터널.
터널로 나와 주위를 살피는 종성. 발자국 소리를 따라간다.

리학수가 터널을 달리는데,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전철 소리가 들린다.

브란덴부르크 역.
강민호와 세황이 역 안으로 도착해 쓰러진 국정원 위장요원들을 발견한다.
강민호가 당황하는 사이 세황이 비상계단 문을 열고 들어간다.

터널.
리학수 앞으로 달려오는 전철. 리학수가 옆으로 몸을 피해 가까스로 전철을 피한다.
리학수 옆을 치고 지나가는 전철. 리학수가 벽에 바짝 붙어 거센 바람을 버티며 조금씩 이동한다.

종성 역시 자기 앞을 치고 나가는 전철 바람을 버티며 옆으로 이동한다.

전철이 지나가 리학수가 다시 달리고, 이 뒤로 곡선구간을 따라 리학수를 쫓는 종성이 보인다.
터널 옆 비상통로로 빠져나가는 리학수. 종성이 달린다.

터널 비상계단.
세황이 비상계단 아래를 달려 나와 터널로 이어지는 문을 여는데-
빠앙- 치고 나가는 전철 때문에 뒤로 물러난다.

터널.
리학수가 터널 비상통로 출입문에 도착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
리학수가 발길을 돌리는 순간, 탕!

터널 안으로 들어와 주위를 살피던 세황이 총소리를 듣고 소리를 따라 달린다.

총구를 겨누며 리학수에게 다가가는 종성.
절망하는,

리학수
... 종성아... 잘 생각하라...

탕! 종성이 총을 쏘고- 문손잡이가 부서진다.

표종성
(리학수를 잡아채고 나가며)
대화는 나중에 합시다.

77. 터널 출구 (Berlin) - 실내/낮

종성이 리학수를 데리고 문을 여는 순간,

마티 (영어 소리)
멈춰!

맞은편에서 매우 긴장한 모습으로 종성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마티 (영어)
총 내려 놔... 어차피 여긴 우리 구역이야... 더 이상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으면...

종성이 리학수를 뒤로 보내고 총을 쏘려는데, 탕- 퍽!
마티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바닥으로 쓰러진다. 그 뒤로 총을 든 동명수가 등장한다.
종성이 리학수를 데리고 옆에 있는 비상문으로 들어간다.
바로 뒤이어 세황이 종성이 들어온 문으로 들어오는데- 탕! 날아든 총알에 뒤로 피한다.
탕! 세황이 총을 쏘며 안으로 들어서는데- 사라지는 동명수를 본다.
세황이 재빨리 안으로 들어오면, 종성이 리학수를 데리고 나간 문이 닫히고 있는 것을 본다.
다시 앞을 보는 세황.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마티가 보인다. 놀라서 마티에게 뛰어가는 세황.
거친 숨을 몰아쉬는 세황이 주변을 확인하며 마티의 맥박을 확인한다.

잠시 패닉에 빠지는 세황. 이 뒤로 강민호가 따라 들어온다.
재빨리 마티의 주머니를 뒤져 마티의 지갑과 휴대폰 등 소지품을 꺼내는 세황. 주머니에서 마티가 챙겨온 세황의 양말이 나온다.

78. 보위부 비밀가옥 (Riga) - 실내/밤

인서트. 베를린 도심 야경. 이 위로-

리학수 (소리)
이러지 않아도 어차피...

손발이 묶인 채 취조 의자에 앉아 자포자기 상태로 말을 거는,

리학수
명수가 원하는 대로 자백할 거라는 건 알잖네... 니가 가르친 중에 제일 뛰어난 놈이니까.

살짝 이성을 잃고 학수의 가방을 뒤지는,

표종성
... 왜 그랬습니까?

리학수
... 살고 싶어서... 우린 평양으로 가도 숙청된다.

표종성
(가방 안의 현찰들을 빼내다 버럭)
우리가 아니라 대사 동지죠!

리학수
... 내가 생각하라 했잖네. 아무리 생각해도 동명수가... 아니... 명수 애비 동중호가 여기 베를린을 먹으려 하고 있어.

표종성
(가방 안의 서류들을 챙기며)
이스라엘 놈들한테 정보 넘긴 것도 대사 동지 짓입니까?

리학수
내 말 들으라... 동명수 일가가 마카오서 관리하든 비밀계좌 은행이 양키 놈들한테 털리고 위험해졌다.

플래시 백, 동중호 집무실. 낮
동중호가 마카오 비밀계좌를 추적한 CIA의 활약을 다룬 외신기사를 읽고 있다.

명수 놈 애비가 김정은이 편이 아니라 김정남이 편이었는데도 어찌 이래 잘 살아남을 수 있었겠니?

플래시 백, 유럽 들판. (Riga) 낮
동명수와 표종성의 호위를 받는 동중호가 유리의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

김정은이 측근들도 무기 팔아서 외국으로 돈 빼돌릴 때 동중호 손을 빌렸거든.

플래시 백, 동중호 집무실. 낮
군부들이 모인 비밀모임에서 동중호가 뭔가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뒤에 동명수가 서 있다.

그런 계좌가 털렸으니, 명수 집안은 새 판을 짜지 않으면 밀려나.

종성이 리학수의 가방에서 빼낸 비밀계좌 자료들을 보고 있다.

리학수
그래서 베를린을 자기들 손에 떨어뜨려야 되는 기다. 유럽 비밀계좌 중앙거점을 확보해 간부들 비자금을 계속 관리해야 하니까.

표종성
(리학수의 가방에서 빼낸 비밀계좌 자료들을 보며)
언제부터 스파이 짓을 한 겁니까?!

리학수
...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표종성
(싸늘하게)
당신은 가족들 다 내버리고 서방으로 넘어가려고 한 사람입니다.

리학수
... 생각하라... 생각... 동명수가 왜 여길 왔고, 니 마누라가 왜 스파이 혐의를 받는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라면, 누가 우리 공작정보를 흘릴 수 있잤는지...

표종성

(흔들리며)
... 정희한테 대체 무슨 일을 시켰소?...

이때 문이 열리고 동명수가 들어온다.
학수의 얼굴에 절망감이 묻어난다.
종성이 명수와 학수를 보며 말문을 닫는다. 불안을 감출 수 없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종성과 눈을 마주친 뒤 카메라를 설치하는,

동명수
당에서 직접 보고 듣는 걸 원해서...

카메라를 설치한 명수가 가방에서 누런색 약물이 든 주사기를 꺼낸다.

리학수
요구되는 걸 말하라. 기대루 대답해 줄 테니... 대신 고통스럽게 죽이지만 말아 달라.

동명수
끝까지 평양에 있는 가족 생각은 안하누만.

리학수
어차피 내래 할 수 있는 건 없잖네.

동명수
(슬쩍 종성을 보고 피식 웃은 뒤 주사기를 가져가며)
모르는 사람들이 보문 누가 누명 씌우는 줄 알갔습니다...

명수가 학수의 팔뚝에 주사를 놓는다.
이를 긴장하며 지켜보는 종성. 괴롭고 두렵다.
잠시 후 눈알이 뒤집히며 입에 거품을 무는 학수.
명수는 차갑게 이를 지켜본다.
온몸에 힘을 주고 버둥거리는 학수. 종성이 학수의 고통스런 발작을 지켜본다.
고통을 이기지 못한 학수가 손톱으로 의자 팔걸이를 긁어대다가 손톱이 부러진다.
학수의 발작이 멈추자 카메라를 켜고 질문하는,

동명수
성명과 소속.

종성이 축 늘어진 짐승처럼 앉아있는 학수를 참담하게 바라본다.
실핏줄이 터져 마치 토끼 눈처럼 된 한쪽 눈 때문에 학수의 모습이 기괴해 보인다.

리학수

... 리... 학... 수...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독일 주재... 북한... 대사...

카메라가 빨간 불을 번쩍이며 학수의 모습을 담고 있다.

동명수

왜 배신했나?

79. 인적이 드문 뒷골목 (Riga) - 실외/밤

마티의 지갑 속 신분증들과 카드들을 불 속에 넣는 세황. 마티의 개인 휴대폰으로 마티 가족들이 마티에게 생일축하 노래를 불러 전송한 동영상을 본다. 이 위로-

강민호 (소리)

관련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계속 잡아떼면 마티가 다 뒤집어 쓰겠죠? 죽었는데 어떻게 증명할거야...

강민호와 함께 불가에 서서 마티의 휴대폰을 분해해 버리는,

천세황

사람이 죽었는데 할 소리냐? 내가 욕심내지 말라 그랬지?

강민호

아니 그럼, 이학수 급 거물이 움직이는데, 눈뜨고 가만 보고만 있을 정보부 책임자가 어딨어요? 국익을 위해서...

천세황

국익?... 니가 출세하는 게 국익이냐?... 그냥 가만있었으면 정보라도 뺄 수 있었단 말이야!

강민호

더 이상 내가 뭘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당신같이 월급 타먹고 버티는 공무원인 줄 알아?!
(한 숨을 내쉬고)
공식적으로 형님 작전은 제가 종결처리 했어요.
(비행기 티켓 건네며)
보고서 작성 안하셔도 되니까 냄새 풍기지 마시고 아웃하세요.
제가 형님을 너무 믿었던 거 같습니다.

천세황

(마티의 휴대폰을 분해해 버리며)
... 어떡하냐? 내 친구가 죽어서 공적인 게 사적인 일이 돼 버렸다.

강민호

뺑이 좀 쳤다고 나한테 지금 골질 합니까?

천세황

미국 공사 발령 받고 싶다며. 더 무너지기 싫으면 지금 사무실 들어가서 CIA 애들하고 여기 경찰 교신 내용들 감청해.
(민호를 두고 발길 옮기며)
앞으로 12시간 안에 끈 못 잡으면 영영 놓친다.

80. 표종성의 집 - 실내/밤

련정희가 난장판이 된 집안을 둘러보며 넋을 놓고 서 있다.
어둠 속에 싸인 채 정희 책상 앞에 앉아서 카메라를 들여다보고 있는 종성에게 다가서는,

련정희

... 무슨 일입니까?

표종성

(퀭한 눈으로 자신이 찍은 카메라 속 영상을 계속 돌려보며)
그러는 자네는 무슨 일인가?

련정희

?...

표종성

(시선 외면한 채 자신이 찍은 동영상을 정희에게 보여주며)
오늘... 외출보고도 없이... 내게 얘기한 곳과 다른 곳에 갔다...

련정희

... 미행했습니까?

표종성

나한테 할 말 없나?

련정희

... 다 알고 계셨습니까?

표종성

다 알았으면 좋겠나?

련정희

... 대사 동지 명령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아니라...

표종성

아직 내가 원하는 건 말하지 않았다.

련정희

당신이 원하는 걸 내가 모르는 모양입니다.

표종성

(벌떡 일어나 정희의 목을 움켜쥐며)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순간, 이성을 잃었던 자신에게 놀란 종성이 움켜쥔 손을 푼다.
이런 종성에게 위축되지 않고 똑바로 두 눈을 마주치는,

련정희

... 아시잖습니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접대도 명령인데 어쩝니까?...

정희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운 종성.

련정희

... 그래도... 뱃속에 애는 우리 앱니다.

표종성

!

81. 다간의 위장 사무실 (Riga) - 실내/밤

어두운 책상 위에서 여행사 파일을 드는 장갑 낀 손. 다간의 여행사 로고 클로즈업.
불 꺼진 사무실에서 세황이 손전등을 들고 여기저기를 뒤지며 대표 방으로 들어간다.
세황의 손전등이 조그만 액자 사진을 비춘다. 분석관과 세황이 함께 확인했던 다간의 사진이다.
손전등을 적외선 모드로 돌려 금고 번호판에 찍힌 지문을 확인하는 세황. 파일을 꺼낸다.
사무실 전화기로 경찰전화 번호 110을 누르는 세황.

파일들 속 아랍 케이터링 서비스 회사 로고에 체크된 기록들을 사진으로 찍으며 전화하는,

천세황 (독일어)
우리 건물에 도둑이 든 것 같아요. 여기 위치는 아인슈타인우퍼...

82. 표종성의 집 - 실내/밤

종성이 서서 지켜보는 가운데, 책상 앞에 앉아 관광객과 자신이 대화하는 동영상을 보는,

련정희
나하고 얘기하는 여행객 남자는 광장에 있는 행사일정을 물어본 겁니다. 난 매주 있는 행사날짜를 알려줬던 거구요.

종성이 앞에서 **"다음 접선은 언제?..."** 라고 해석했던 입모양이 완전히 다른 뜻으로 해석된다.
종성의 카메라를 통해 미국 대사관 근처 건물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자신의 사진을 보는,

련정희
그리고 이곳은... 산부인과가 있는 곳입니다...

표종성
(카메라를 치우며)
... 왜 얘길 안했나?

련정희
당신이... 우리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무거운 침묵.

표종성
...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사실을 말하라.

련정희
(핸드백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종성에게 건네며)
이게 사실입니다.

종성이 사진을 받아보면, 정희 뱃속을 찍은 초음파 사진이다.

표종성
(평정심이 흔들리며)
... 이게 사실이라면 왜 말하지 않았나?

련정희

내 말을 듣기나 했습니까? 내 입장은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습니까? 어떻게든 한 번 살아보겠다고, 온갖 더러운 짓거리 참아내며 버티는 내 기분이 어떤지나 압니까?

표종성

……

련정희

우리 첫 아이... 제대로 젖도 못 물리고 보낸 지 이제 이년 됐습니다... 말도 못하는 애가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해 봤습니까? 당만 믿고 두고 나왔는데, 어떻게 치료받았는지도 모르고 아이 시신도 보지 못했어요... 이런 꼴 두 번 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표종성

낙태라도 할 생각이었나?

련정희

... 그 사진 보기 전엔...

표종성

(애써 냉정을 되찾고 초음파 사진을 돌려주며)
... 내일 아침 나와 함께 병원으로 간다. 만약 거짓말일 경우...

련정희

고발당하고 스파이가 되는 겁니까?... 내가 스파이가 돼야 당신 마음이 편하겠죠... 당이 나를 스파이라고 했으니까.

표종성

... 오늘... 리학수 동지가 서방으로 망명을 시도했다.
(놀라는 정희에게 종이와 펜을 건네며)
지난 일주일 간 행적을 빠짐없이 적으라.

빈 종이를 보는 정희. 서럽고 화가 난다.
이때 전화가 걸려온다. 적막을 깨는 전화 소리에 놀라는 두 사람.
전화와 정희를 번갈아 보는 종성. 긴장한 모습으로 천천히 전화기를 향해 간다.
조심스럽게 수화기 드는 종성을 보는 정희.

83. 보위부 비밀가옥 (Riga) - 실내/밤

피묻은 옷을 벗으며 통화하는,

동명수

형님, 자백은 받으셨소?

84. 표종성의 집과 보위부 비밀가옥(Riga) - 실내/밤

표종성의 집.
정희에게 등을 돌린 채 통화하는,

표종성

아직 시간이 남았다.

정희가 슬쩍 종성의 작업 방으로 들어간다.

보위부 비밀가옥. (Riga)

동명수

부부생활 하시는데 제가 깨웠구만요.

표종성의 집.

표종성

... 리학수 동지 취조는?

보위부 비밀가옥. (Riga)
보위부 요원들 네 명이 리학수의 시신을 보디 백에 넣고 얼음 채우고 방안을 정리하는 와중에 자신이 벗은 옷을 요원들에게 치우라고 던져주며 통화하는,

동명수

덕분에 잘 끝났습다. 리학수는 평양으로 송환처리 될기요. 수고가 많으셨소.

85. 다간의 위장 사무실 (Riga) - 실외,내/밤

건물 아래 경찰들과 이야기를 마친 다간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다간 사무실 안쪽에서 세황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승강기에서 다간이 내리는 순간, 지직- 옆에서 갑자기 나타난 세황이 전기 충격기를 쏜다.
쓰러진 다간의 맥박을 확인하고, 다간의 양쪽 엄지손가락을 지문 인식기로 찍는 세황.
이어서 다간의 눈을 벌려 안구 인식기로 찰칵- 찍는다.

86. 표종성의 집과 보위부 비밀가옥(Riga) - 실내/밤

표종성의 집.
시계를 보고 긴장하는,

표종성
... 아직 정희 혐의는... 입증할 증거를 못 찾았다.

수화기 너머로 동명수의 코웃음 소리가 들린다.

동명수 (소리)
긴장 푸시오, 이제.

표종성
?

보위부 비밀가옥. (Riga)
보위부 요원들이 리학수의 시체를 끌고 나가는 가운데 통화하는,

동명수
축하드리오, 형님.

표종성의 집.
정희가 작업 방에서 수화기를 들고 통화 내용을 엿듣고 있다.

보위부 비밀가옥. (Riga)

동명수
당성 시험에 무사히 통과하셨소.

표종성의 집.
작업 방에서 수화기 입을 막고 몰래 듣던 정희. 충격 받는다.
멍해진 종성. 이 위로-

동명수 (소리)
모든 게 리학수 때문이었습다.

보위부 비밀가옥. (Riga)
옷을 입고 주변을 정리하며 통화하는,

동명수
위원장 동지 돌아가시고, 평양으로 들어오는 외화벌이 액수가 눈에 띄게 줄었단 말임다.
(책상에서 튀어나온 못에 바지가 걸리자 튀어나온 못을 보며)
김정은 대장동지 힘 실어주려고 한창 어수선 한 때 이러니..
(권총으로 튀어나온 못을 박으며)
리학수가 개인 사유재산 빼돌리고 망명할 거라고 당이 의심 안 합니까? 근데 거기 형님까지 말이 나오지 않았잤소.

비밀가옥 건물 외부. (Riga)
승합차 두 대가 서 있고, 밖으로 나온 보위부 요원들이 리학수의 시신을 한쪽 승합차에 넣는다.

나를 비롯해 사람들이 표종성 동지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보위부나 당의 입장이 어디 그렇슴까?

승합차 안에 준비된 화물 상자를 여는 보위부 요원들.
이중으로 된 화물 상자 밑바닥에 리학수의 시신을 넣고 그 위에 얼음주머니를 더 채운다.

그래서 내 당성 시험을 치르자 했지. 지 마누라까지 수틀리면 고발하는 사람 당성을 어케 의심하잤소? 좀 이따 보위부 식구들이 집으로 찾아갈 기요.

표종성의 집.
넋 놓고 듣고 있는 종성 위로-

동명수 (소리)
낼 평양으로 함께 가 축하받고, 새로 올린 계급장 차믄, 다시 나오실 겜다.

종성이 정신을 차리고 방안을 훑어보는데, 정희가 보이질 않는다.

동명수 (소리)
집은 오늘 일로 혹 추적당할까 평양서 온 친구들이 청소할 기요. 필요한 것만 챙겨 준비하고 계시오.

보위부 비밀가옥. (Riga)

동명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다. 형님은 저까지 살리셨소.

표종성의 집.
종성이 전화를 끊고 작업 방으로 뛰어 들어간다.
수화기를 들고 있던 정희가 방을 나가려 한다.

표종성

(정희를 막아서며)
... 어디까지 들었나?...

정희가 종성에게 따귀를 날리는데, 종성이 본능적으로 이를 막는다.
순간, 움찔하는 종성.
정희가 어이없이 종성을 본다. 종성이 눈을 깐다.
정희가 종성의 뺨을 툭 친다.
종성이 말없이 맞는다.
종성의 뺨을 툭, 툭 치는 정희. 종성은 끄덕하지 않고 묵묵히 맞고 있다.
화가 난 정희가 종성의 뺨을 세차게 연속해서 때린다. 종성은 묵묵히 서있다.

련정희

... 당신은 비겁해.

작업 방을 나가는 정희를 뒤로한 채 종성이 고개 숙이고 서있다.

87. 다간의 위장 사무실 (Riga) - 실내/밤

차악- 스탠드 조명이 다간의 얼굴을 비춘다. 플라스틱 타이로 손발이 묶인 다간이 의자에 앉은 채 눈살을 찌푸린다.

다간 (영어)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천세황 (영어)

(안구 인식기에 뜨고 있는 정보를 보며)
북한하고 아심 조직 무기거래 하는 정보 어디서 받았어?

다간 (영어)

나한테 한 짓이 알려지면, 넌 죽어.

천세황 (영어)

(검색된 안구 인식 정보를 보여주며)
너는 어떻게 될 것 같은데?

88. 표종성의 집 - 실내/밤

욕실 안.
정희가 물을 틀어 놓고 앉아 배신감과 분노의 감정을 겨우 억누르고 있다.

욕실 앞에서 새어나오는 물소리를 들으며 서 있는 종성. 혼란스럽다.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와 서성이다 틱- 뭔가 밟는데,
내려 보면, 동명수가 집어 들었던 정희의 브래지어다. 이 위로-

천세황 (영어 소리)
오늘 북한 빨갱이 새끼가 쏜 총에 내 친구 머리가 뚫렸다.

89. 다간의 위장 사무실 (Riga) - 실내/밤

다간 (영어)
브란덴브루크 터널?

천세황 (영어)
근데 죽은 그 친구가 CIA야. 아심 조직을 추적하던.
(안구 인식기를 들어 보이며)
내가 윗선에 네 신분 노출시키고, 정황상 북한하고 이스라엘이 손잡았다고 보고하면, 아마 이틀도 안 돼서 이 신상명세가 CIA에 뿌려질 거야. 니가 현장에서 북한 놈 빼돌렸던 건 사실이잖아.
(다간이 할 말을 잃자)
어때, 미국하고 시원하게 외교 문제 한번 일으키고 싶어?

다간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어뜨린다.

90. 표종성의 집 - 실내/밤

브래지어를 집어 들며 살펴보는 종성. 이 위로-

다간 (영어 소리)
... 한 달 전 쯤, 평양에서 우리 쪽으로 연락이 왔어.

브래지어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이 만져지는데... 작은 동전이 나온다.
동전을 잡고 힘을 주자 틱- 동전이 반으로 쪼개지며 USB가 나온다.
USB를 빼내는 종성. 이 위로-

다간 (영어 소리)
자기네 베를린 공관 인력들을 교체할 빌미를 만들어주면...

시계를 보는 종성. 새벽 3시 50분을 넘어서고 있다.

자기들과 거래하는 아심을 우리한테 넘겨주겠단 거였지.

91. 다간의 위장 사무실 (Riga) - 실내/밤

다간 (영어)
교체할 빌미라는 건 그때 그 무기거래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였고.

천세황 (영어)
... 북한 공관 내부에서 배신이라도 생긴 거야?

92. 표종성의 집 - 실내/밤

집안을 둘러보며 구석구석을 살피는 종성. 곳곳에 도청장치를 숨길 수 있는 틈이 보인다.
텔레비전과 오디오 스피커를 유심히 바라보는 종성. 이 위로-

다간 (영어 소리)
우린 필요한 것만 알아... 하지만... 정황상 그때 현장에 있던 북한 친구는 배신당했다고 봐야겠지...

93. 플래시 백

표종성의 집. 밤

표종성
... 내일 아침 나와 함께 병원으로 간다. 만약 거짓말일 경우...

련정희
고발당하고 스파이가 되는 겁니까?...

보위부 비밀가옥. (Riga) 밤

동명수
축하드리오, 형님... 당성 시험에 무사히 통과하셨소.

94. 표종성의 집 - 실내/밤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는 종성. 집안 전체가 마치 종성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 두려움과 혼란...

동명수 (소리)
그래서 내 당성 시험을 치르자 했지. 지 마누라까지 수틀리면 고발하는 사람 당성을 어케 의심하잤소?

종성이 텔레비전과 오디오를 켠 뒤 식탁 위에 둔 종이와 바닥에 굴러다니는 매직펜을 들고 욕실로 향한다.

욕실 문이 잠겨 있자, 담요를 들고 손잡이를 씌운 뒤 퍽!- 욕실 손잡이를 부수고 들어가는 종성.

욕실.
정희가 종성을 노려본다.
밖으로 나가려는 정희를 향해 다급하게 수신호로 입을 막고 귀와 천장을 가리키는 종성.
종성의 수신호를 알아본 정희가 멈춘다.
종성이 재빨리 수증기가 올라온 거울로 다가가 글씨를 쓴다.

"도청"

95. 다간의 위장 사무실 (Riga) - 실내/밤

천세황 (영어)
그때 통화기록 가지고 있지?

다간 (영어)
그걸 달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천세황 (영어)
(녹음되고 있는 전화기를 꺼내 보이며)

어차피 지금 니가 한 말 다 기록됐어. 이 기록 없애고 싶으면 빨갱이 새끼랑 통화한 거 넘겨.

96. 표종성의 집, 욕실 - 실내/밤

메모한 종이에 불을 붙이고 다음 종이에 적는,

"당신 고발"
"동명수에게 한 적 없음"
"이거 본 적?"

브래지어에서 찾은 동전 속 USB를 정희에게 보여주는 종성. 혼란스럽게 종성을 보는 정희.

"동명수 집에 왔었음."

플래시 백, 표종성의 집. 낮
집에 찾아와 여기저기 훑어보던 동명수가 정희의 브래지어를 들고 그 안에 동전 USB를 숨긴다.
종성을 바라보며 브래지어를 바닥에 툭 던지는 명수.

혼란과 공포에 휩싸인 정희를 앞에 두고 계속 메모하고 태우기를 반복하는 종성.

"고발... 당신 입에서 처음..."
"어떻게?... 고발하지도 않았는데"
"당성시험 통과... ?"
"함정"
"도망쳐야 돼"

싸늘하게 바라보는 정희.
종성이 손목시계를 보여준다. 시간은 네 시를 향하고 있다.

"새벽 네 시는"
"체포의 시간"

이때, 쿵쿵쿵!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97. 보위부 비밀가옥 (Riga) - 실내/밤

감청장치를 통해 무심히 텔레비전 소리를 듣고 있다가 무전 연락을 하는,

동명수

갑자기 집안 소리가 크다. 조심들 하라.

98. 표종성의 집 - 실내,외/밤

창밖을 확인하는 종성.

건물 아래 승합차 한 대가 서 있고, 그 옆에 보위부 요원 하나가 무전하며 서 있다. (Riga)

현관문 옆에 서는 종성. 보안렌즈를 열어 덴탈 미러로 복도를 확인한다.
두 명의 보위부 요원들이 무기 없이 서 있다. (이 중 보위부 요원 1은 전철에서 종성이 봤던 낯선 동양인이다.)
종성이 문을 열자 인사를 하며 안으로 들어오는,

보위부 요원 1

짐 정리는 하셨습까?

종성을 지나치며 밀고 들어온 보위부 요원 2가 숨겨둔 USB 위치를 아는 것처럼 브래지어가 있던 곳으로 간다.

보위부 요원 1

(소형 카메라를 꺼내며)
보고용 기록 좀 남기갔습다.

카메라를 든 보위부 요원 1 역시 USB가 발견된 브래지어가 있던 곳으로 다가가 찍는다.
엉뚱한 브래지어를 집어 들고 뒤적이는 보위부 요원 2. 그 위로-

표종성 (소리)

이거 찾나?

종성이 USB를 들고 서 있다.
순간, 총을 꺼내려는 보위부 요원들을 향해 푸슉- 푸슉- 푸슉- 푸슉- 총을 쏘는 종성.
가슴과 머리에 각 한발씩 정확하게 명중시킨다.
쓰러진 보위부 요원 1의 허리에 있는 비상호출기가 켜져 있다.

99. 표종성의 집 앞 (Riga) - 실외/밤

비상호출기를 확인한 보위부 백업 요원이 기관총을 빼들고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간다.

100. 보위부 비밀가옥 (Riga) - 실내/밤

비상호출 신호가 울리는 호출기를 만지며 휴대폰을 꺼내드는,

동명수

개새끼들, 조심들 하라니까니...

101. 표종성의 집 - 실내/밤

작업 방.
종성이 바닥을 뜯어 그 아래 숨겨뒀던 권총과 탄약이 든 상자와 현찰뭉치를 꺼낸다.
노트북을 챙겨 가방에 쑤셔 넣는 종성.

정희는 죽은 보위부 요원들의 맥박을 확인하고 있다. 싸늘한 시체 앞에서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는 정희에게 종성이 다가온다.

102. 압둘의 아지트 (Riga) - 실내/밤

빈방에 전화벨이 울리고, 옆방 문이 열리며 아랍 남자 1이 전화를 받는다. 전화를 받은 아랍 남자 1이 “압둘”을 부르며 옆방 문을 열자 폭탄을 만들고 있는 아랍 남자들이 보이고, 이 뒤로 리더인 압둘이 전화를 받으러 오는 것이 보인다. 이 뒤로 벽에 붙은 케이터링 회사 로고가 보인다.

103. 표종성의 집, 복도 (Riga) - 실내/밤

종성과 정희가 집을 나서는데,
계단을 올라오는 보위부 백업 요원이 종성과 정희를 발견하고 푸슈슈슉- 소음 기관총을 쏴댄다.
푸슉- 푸슉- 종성이 응사하며 정희를 데리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간다.

104. 보위부 비밀가옥 (Riga) - 실내/밤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책상 위에 놓인 총을 조립하며 통화하는,

동명수 (영어)

연락이 좀 늦었지? 너희 형 소식은 들었어?

105. 압둘의 아지트 (Riga) - 실내/밤

아심과 같이 화상 입은 손으로 전화 받던 압둘의 표정이 굳는다.

플래시 백, 웨스틴 호텔 근처 도로. (Berlin, Riga) 낮
달리는 차 안에서 체포한 아심과 유리의 얼굴에 검은 두건을 씌우는 다간과 모사드 요원들.

압둘 (영어 소리)
모사드 놈들이 재판도 않고 처형했어.

106. 보위부 비밀가옥과 압둘의 아지트 (Riga) - 실내/밤

동명수 (영어)
너희 형 아심을 이스라엘 놈들한테 넘긴 배신자를 찾았다... 지금 움직이면 잡을 수 있어.

압둘 (영어)
그게 누군데?

동명수 (영어)
너도 아는 사람이야...

플래시 백, 유럽 들판. (Riga) 낮
무기 거래를 마친 아심과 압둘이 동명수, 표종성과 악수를 나눈다.

동명수 (영어 소리)
표종성.

107. 표종성의 집 - 실내,외/밤

종성이 정희를 데리고 작업 방으로 들어와 창 쪽 벽면에 붙은 지도를 잡아당긴다.
차악- 지도가 말려 올라가며 창문이 노출된다. 정희가 두려움과 혼란 속에 종성을 보는데-
종성이 소음기를 빼며 정희에게 자신의 권총과 가방을 건넨다.

파바바박! 보위부 백업 요원이 쏜 총알에 현관문 손잡이가 부서져 나가고-
쾅!- 보위부 백업 요원이 현관문을 걷어차며 집안으로 들어온다.

정희가 총과 가방을 들고 창밖으로 나간다.
다시 창을 내린 종성이 작업 방 벽에 바짝 붙어 선다.

보위부 백업 요원이 총을 겨누며 집안 곳곳을 살핀다.

지붕으로 나간 정희가 조심스럽게 이동한다. 정희가 디딘 곳 기와가 미끄러지며 아래 유리 지붕 위에 떨어져 깨진다.

시체들을 확인하던 보위부 백업 요원이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작업 방 쪽으로 향한다.

작업 방 안에 있던 종성이 문아래 그림자를 통해 보위부 백업 요원이 다가오는 것을 확인한다.
보위부 백업 요원이 문 앞에 서는 순간,
퍽-! 강하게 문을 밀치고 나가는 종성.
갑작스럽게 종성이 밀치고 나오자 보위부 백업 요원이 총을 놓친다.

정희가 중심을 잡으며 계속 지붕 위를 이동한다.

집안에선 목숨을 건 육박전이 벌어지고 있다.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고, 서로를 공격하며 살벌한 공방전을 펼치는 두 사람.
서로 총을 잡으려 기회를 노린다.
필사적으로 싸우던 종성이 죽은 보위부 요원들 쪽으로 구르며 그들의 총을 빼낸다.
보위부 백업 요원이 종성의 시야에서 벗어나며 자신의 기관총을 잡는다.
탕! 탕! 종성이 권총을 쏜다.

지붕을 타고 건너편 테라스로 착지한 정희. 총성이 울리자 집 쪽을 돌아본다.

푸슈슈슈슈슉-! 종성을 향해 기관총을 쏴대는 보위부 백업 요원.
파바바박- 집안이 부서져 나간다.
탕탕탕! 응사하는 종성. 보위부 백업 요원의 공격을 피해 창 쪽으로 몸을 던진다.

쾅-! 창을 깨며 아래로 떨어지는 종성. 슈우욱- 쿵! 창 아래 피라미드 형 유리지붕 위로 떨어진다. 쩍- 두꺼운 강화유리에 균열이 생긴다.

보위부 백업 요원이 푸슈슈슉- 기관총을 난사하며 창 쪽으로 나온다.

파바바박- 두꺼운 유리지붕 위에 보위부 백업 요원의 총알이 박힌다.
종성이 놓친 총과 함께 유리지붕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간다.

건너편 테라스에 있던 정희가 종성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보위부 백업 요원을 향해 권총을 겨눈다. 탕- 탕- 탕-!

퍽- 퍽- 퍽- 총을 쏘던 보위부 백업 요원이 정희가 쏜 총에 맞아 아래로 떨어진다.
종성이 미끄러지던 유리지붕 턱에 걸리는 순간, 쿵!-
보위부 백업 요원이 유리지붕 위에 떨어진다.
쾅-!
유리지붕이 무너지고, 턱에 걸렸던 종성이 보위부 백업 요원과 함께 유리지붕 아래로 떨어진다.
종성이 철제 프레임을 잡고 버티는데, 엉킨 전기선들이 종성의 발목에 걸린다.
프레임에 연결된 전기선이 촤촤착-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떨어져나간다.
발목에 감긴 전기선이 아래로 당겨지는 바람에 종성이 아래로 추락한다.
퍽-! 보위부 백업 요원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종성이 빠르게 아래로 추락하는데 종성이 필사적으로 발목에 감긴 전기선을 잡고 몸을 일으켜 매달린다.
땅위에 아슬아슬하게 등판을 긁히며 튕겨지는 종성.
벽에 쿵! 부딪치며 2중 충격을 받는다.
순간, 전기선이 끊어지며 종성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죽은 듯 바닥에 엎어져 있는 종성을 내려다보는 정희.
종성의 몸이 꿈틀한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정희.
몸을 돌린 종성이 정희를 본다.

108. 다간의 위장 사무실 (Riga) - 실내/밤

다간이 컴퓨터에서 음성파일을 MP3에 옮기고 있다.
이 옆에서 지켜보는 세황. 전화벨이 울린다. 이 위로-

강민호 (소리)
방금 경찰에 총격전 신고가 접수됐어요.

109. 국정원 위장 사무실 내 상황실과 다간의 위장 사무실(Riga) - 실내/밤

국정원 위장 사무실 내 상황실.
위성지도가 뜬 모니터를 보며 헤드셋으로 세황과 통화하는,

강민호
해당 현장건물 세입자 중에 북한 대사관 통역관이 있네요.

다간의 위장 사무실. (Riga)
다간의 눈치를 살피며 시간을 확인한 뒤 조용히 뒤에서 통화하는,

천세황

오케이... 현장 주소 보내주고, CIA 위성통신 감청망 데이터 확보 가능하지?... 현장 반경 20킬로미터 내 모든 채널 감청공유 해줘.

국정원 위장 사무실 내 상황실.
분석관들의 모니터에 각종 음성 그래프들이 뜬다.

강민호
이거 우리 목 걸고 가는 거 알죠?

다간의 위장 사무실. (Riga)

천세황
넌 네 일 해. 난 내 일 할 테니까.

국정원 위장 사무실 내 상황실.
끊긴 전화 신호음을 들으며 한숨을 내쉬는,

강민호
현장 주변 CCTV 해킹해.

스크린 화면에 종성의 집 주변 보안 카메라를 해킹한 화면이 뜬다.
경찰차와 앰뷸런스가 종성 집 주변으로 오고 있다. (Riga)

다간의 위장 사무실. (Riga)
전화 끊고 다간에게 MP3를 받은 뒤 전화기에 녹음된 내용 삭제버튼을 누르는,

천세황 (영어)
CIA는 영원히 이 문제 모를 거야. 너희 쪽에서 새지 않는 한.

다간 (영어)
조심해. 언젠간 우리 손에 걸려.

세황이 다간을 뒤로 하고 나간다.

110. 중급호텔 로비 (Riga) - 실내/밤

프런트 데스크에 종업원 하나가 꾸벅꾸벅 졸고 있다.
이 앞으로 정희를 데리고 온 종성이 알람 벨을 띵- 울린다.

표종성 (독일어)

방 있소?

잠에서 덜 깬 종업원이 열쇠를 찾아 건네고 숙박부를 꺼내자 종성이 현찰을 꺼내 보인다.

표종성 (독일어)
숙박부에 기록은 안 남겼으면 좋겠는데?

종업원 (독일어)
(돈을 슬쩍 보고)
아침에 교대할 사람한텐 뭐라고 하죠?

정희가 슬쩍 카운터에 있는 편지봉투 칼을 챙긴다.

표종성 (독일어)
(돈을 더 건네며)
객실 청소할 직원 몫까지.

종업원 (독일어)
(돈을 받고 열쇠 건네며)
아침 8시 전에는 나가주세요...
(종성과 정희의 행색을 보고 비릿하게 웃으며)
원래 위험한 사랑은 돈이 많이 들어요.

111. 중급호텔 방 - 실내/밤

종성이 문을 잠근다.
밖을 확인한 뒤 창문 커튼을 치고, 불빛이 새나갈 수 있는 현관 문틈을 수건으로 막는 종성.

정희는 외투를 벗어놓고 화장실에서 히스테릭하게 손을 씻는다.

문 앞에 작은 테이블을 기대어 문손잡이가 돌아가지 않게 만든 뒤, 화장실에서 나오는 정희에게 다가가는,

표종성
괜찮나?

련정희
(종성의 다친 상태를 보고)
우선 당신 치료부터 합시다.

112. 표종성의 집 앞 (Riga) - 실외/밤

경찰차와 앰뷸런스가 진을 치고 있고, 건물에서 시체가 실려 나오고 있다.
앰뷸런스에 시신이 들어가는 것을 보는 세황. 사람들 틈에서 나와 통제중인 신참경찰에게 위조 신분증을 대충 보이며 다가선다.

천세황 (영어)
외교부 직원입니다. 신원 확인 연락을 받았어요.

막무가내로 세황이 밀고 들어와 앰뷸런스로 들어가자, 영어에 서툰 신참 경찰이 당황하며 무전을 한다.

113. 중급호텔 방, 화장실 - 실내/밤

좌악- 침대 시트를 찢어 붕대를 만드는 정희. 종성의 상처를 씻어내고 응급처리를 해준다.
비좁은 화장실에서 몸을 움직이는 두 사람. 숨소리가 거칠다.
종성이 돌아서 정희와 얼굴을 맞댄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서로를 바라본다.
종성이 뭐라 말을 꺼내려는데, 정희가 외면하며 밖으로 나간다.

114. 국정원 위장 사무실 내 상황실 - 실내/밤

모니터를 통해 세황이 전송하는 앰뷸런스 내부가 보인다. (Riga)
이를 지켜보는 강민호 위로-

천세황 (소리)
총상... 가슴, 머리 정확하게 한 발씩 조준 속사.

115. 표종성의 집 앞 (Riga) - 실외/밤

앰뷸런스 안.
핸드폰으로 시체의 총상과 얼굴을 찍으며 바지 속을 확인하는,

천세황
이 새끼들 포경도 안 했고...
(이어서 시체 입을 벌려 조악한 보철치료 상태를 확인하며)
치과치료 상태도 이북 놈들 맞아.

(밖을 살피며 다가오는 경찰들을 확인하고)
이동한다.

재빨리 앰뷸런스에서 내려 이동하는 세황. 우왕좌왕 하던 경찰들이 세황을 발견하지 못한다.
세황이 사라진 저편으로 사진을 찍는 동양인 하나가 보인다. 동명수의 호위요원이다. 전화를 걸며 어디론가 이동하는 호위요원.

116. 보위부 비밀가옥 외부 (Riga) - 실외/밤

어두운 건물 뒤편에 동명수와 압둘, 압둘의 부하가 차를 세워놓고 서 있다.
전화를 끊고 말을 건네는,

동명수 (영어)
그 배신자 놈이 우리 동지들을 다 죽이고 도망갔어.

압둘 (영어)
우리가 잡는다.

인서트, 중급호텔 방. 밤
노트북을 펼치는 종성. 화면을 켜고 동명수가 숨겨 두었던 USB를 꺼내 끼운다.

동명수 (영어 소리)
일단, 현장 반경 10킬로미터 안에 있는 호텔들 다 뒤져. 숙박기록은 안 남겼을 테니 이 시간에 현찰로 들어온 남자, 여자 두 사람.

압둘 (영어)
확실한 거야?

동명수 (영어)
그 놈한테 배운 거니까. 계획 없이 도망칠 땐 등잔 밑에 몸을 숨겨라.

압둘이 전화기를 꺼내 버튼을 누른다.

117. 압둘의 아지트 (Riga) - 실내/밤

대기 중이던 4명의 압둘 부하들 중 아랍 남자 1이 전화를 받는다.

네 명의 아랍 남자들이 각자 무기를 챙기며 전화기를 꺼내든다.

아랍 남자 1이 스마트 폰으로 사건 주변 지도검색을 하고,
다른 아랍 남자들은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

인서트. (Berlin, Riga)
도박장, 뒷골목, 허름한 주택, 식당, 고급 호텔, 클럽, 등등 베를린 곳곳에서 활동하는 압둘의 조직원들이 연락을 받는다.
분할화면으로 연락받는 이들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며-
택시, 호텔 청소부, 데스크, 발렛 파킹, 세탁실 등에서 근무하는 압둘의 아랍 정보원들이 전화 받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세탁물을 운반하는 아랍 조직원 하나가 세탁물을 들고 중급호텔 안으로 들어가며 전화를 받는다.
로비에 세탁물 아랍 조직원이 도착하면, 종성에게 방을 준 중급호텔 직원이 잠에서 깬다.

분석관 1 (소리)
부장님. CIA 위성망에서 '북한', '압둘, '아심' 이라는 단어가 검색 됐습니다. 사용언어는 아랍어구요.

118. 국정원 위장 사무실 내 상황실 - 실내/밤

분석관들의 모니터에 뜬 사고현장 위성 지도를 살피는,

강민호
아랍?... 위치는?

분석관 2
사고 현장 10킬로미터 근방에 집중적으로 시간이 몰려 있습니다.

119. 중급호텔 근처 도로 (Riga) - 실외/밤

운전하며 본부와 교신하는,

천세황
반경 10킬로 안쪽에서 숨어들었을 테니까 근처 호텔, 병원, 사건 시간 맞춰서 네트워크 기록 해킹해서 상황 공유해줘.

이때 맞은편에서 지나치는 아랍 케이터링 승합차를 보는 세황.

플래시 백, 다간의 위장 사무실. (Riga) 밤
아랍 케이터링 승합차에 붙은 것과 같은 케이터링 서비스 회사 로고 사진을 보는 세황.

세황이 급하게 차를 돌려 케이터링 승합차를 쫓는다.

120. 중급호텔 방 - 실내/밤

USB 연결된 모니터에 각종 숫자들이 표시된다.
모니터를 보는 종성의 모습 위로-

리학수 (소리)

... 생각하라... 생각...

플래시 백, 보위부 비밀가옥. (Riga) 밤

리학수

동명수가 왜 여길 왔고, 니 마누라가 왜 스파이 혐의를 받는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라면, 누가 우리 공작정보를 흘릴 수 있는지...

리학수의 가방에서 꺼낸 서류들을 보는 종성.

모니터에는 각종 비밀은행 계좌와 무기거래 내역이 담긴 기록들이 뜨고 있다.
리학수의 가방에서 봤던 서류와 모니터에 떠있는 계좌 내역들이 일치한다.
내용을 확인하고 정희에게 말을 꺼내는,

표종성

... 내 말 잘 들으라... 지금 동명수가... 공관 비밀계좌 자료를 내가 빼돌린 것처럼 꾸미려고 한다... 리학수 동지와 나를 배신자로 만들어 색출하면, 동명수가 그 공로로 베를린 지부장이 될 수 있지... 그카믄 정치적으로 몰린 동명수 식구가 확실하게 평양을 빠져나올 수 있다.

USB를 빼낸 뒤 컴퓨터 사용기록을 지우는 종성 향해 말하는,

련정희

... 어디까지가 시험이고 어디까지가 진짭니까?

표종성

명수가 우릴 고발하려 한다는 게 진짜다...

121. 6.17 도로, 보위부 위장차량 안 (Berlin, Riga) - 실내,외/밤

동명수 일행을 태운 승합차가 도심 도로를 빠져나간다.

압둘 (영어)
배신자 놈은 우리한테 넘겨 줘.

동명수 (영어)
나도 그러고 싶지만,
(뒤쪽에 리학수의 시신이 든 상자를 가리키며)
저 놈하고 같이 데려가야 돼.

122. 중급호텔 방 - 실내/밤

종성과 거리를 두고 종성을 몰아붙이는,

련정희
그게 사실이라믄 왜 이러고 있습니까? 당을 믿는 한, 당은 인민을 버리지 않는다면서요? 이제 어디로 가면 됩니까? 평양으로 갑니까?
(종성이 대답을 못하자)
...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고는 있습니까?

123. 중급호텔 앞, 로비 (Riga) - 실외,내/밤

중급호텔 앞에 케이터링 승합차가 서고, 압둘 부하인 아랍 남자 네 명이 차에서 내려 마스크를 쓰고 호텔로 들어간다. 이 위로-

동명수 (영어 소리)
내가 베를린 책임자가 되면,

124. 스파이 다리, 보위부 위장차량 안 (Berlin, Riga) - 실내,외/새벽

차로 이동하며 압둘과 계속 대화 이어가는,

동명수 (영어)
이제 중개인 없이 직접 거래할 수 있어. 훨씬 빠르고 싸게. 원하

면 미국 놈들 위조지폐도 만들어 줄 수 있고. 달라는 우리가 제일 잘 만들잖아.

압둘 (영어)
어쨌건 그놈 시체를 가지고 빠져나간 다음 일이라면서.

동명수의 차량이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간다.

125. 중급호텔 방과 복도 - 실내/새벽

방.

련정희
(외투를 챙기며)
우린 여기까집니다.

표종성
(다급하게 정희를 돌려세우며)
망명이라도 할 생각인가?

련정희
왜 못합니까? 날 의심하는 사람하고 사느니 낯모르는 사람들 속에 사는 게 편하지 않갔습니까?

표종성
지금 어딜 가겠다고?

련정희
그걸 모르긴 당신이나 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나마 난 내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는 압니다.

표종성
당에 증명할 수 있다. 날 믿으라...

련정희
당신이 날 믿지 않았는데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합니까?

정희가 종성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종성이 거칠게 정희를 돌려세운다.
정희가 주머니에서 편지봉투 칼을 꺼내 종성에게 겨눈다.

련정희

(눈물이 고인 채 싸늘하게)
... 너무 가혹하믄 죄 받습니다...

이때 철컥-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작은 테이블로 받쳐놓은 문손잡이가 덜컹거린다.
다급하게 정희의 칼 쥔 손을 잡아채 자기 목에 들이대는,

표종성

언제든 죽이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복도.
손잡이가 걸려 문이 열리지 않자, 푸슈슈슉- 아랍 남자들이 한발 물러서며 총을 쏜다.

방.
총알에 뚫리는 방문. 동시에 종성이 방 불을 끄고 정희를 방 안쪽 화장실로 데려간다.

쾅!- 방문을 부수고 문 뒤에 숨어서 방 안쪽을 향해 난사해대는 아랍 남자들.

종성이 정희를 데리고 숨은 화장실 문이 부서져 나간다.

한바탕 난사를 끝내고 안쪽을 살피는 아랍 남자들.
아랍 남자 1이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화장실 안쪽에 몸을 숨긴 종성. 부서진 문틈 사이로 깨진 거울을 이용해 조준한 뒤, 탕! 탕! 권총을 쏜다.

총알이 아랍 남자 1을 스치고-
아랍 남자들이 벽에 바짝 몸을 붙이며 화장실 쪽으로 난사해댄다.

정희를 보호하며 화장실 벽에 바짝 붙는 종성.
화장실 문이 다 부서져나가고, 화장실 안쪽 타일과 세면대 등이 산산조각이 난다.
필사적으로 정희를 끌어안고 파편을 몸으로 막아내는 종성.
화장실 문이 완전히 부서져 떨어져 나간다.

총을 쏘는 동료들을 멈추게 하며 안에 대고 소리치는,

아랍 남자 1 (독일어)

우린 널 죽이러 온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죽일 수밖에 없어. 십초 안에 선택해. 하나!

종성이 정희를 본다.

아랍 남자 1 (독일어 소리)

둘!

정희가 고민하는 종성을 본다. 아랍 남자 1의 카운트가 계속된다.
총을 들고 고민하던 종성이 정희의 배를 만진다.

표종성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셋은 살아남는다. 그것만 생각하라.

사격 준비를 하며 마지막 카운트를 하는,

아랍 남자 1 (독일어)

열!

아랍 남자들이 치고 들어가려는 순간, 바닥에 종성의 총이 툭 떨어진다.
종성이 손을 들고 투항한다.

126. 중급호텔 복도, 승강기, 비상계단 - 실내/새벽

6층 복도.
아랍 남자 1이 정희를 옆에 두고 승강기 버튼을 누른다.
좁은 승강기 복도에 아랍 남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서있는 정희와 종성.
정희와 종성이 눈을 마주친다.
승강기가 올라오고 띵- 문이 열리는데, 안에 천세황이 타고 있다!
승강기에 낯선 동양인이 타고 있자 당황하는 아랍 남자들.
짧은 순간, 정희와 종성을 보는 세황. 세황과 눈이 마주치는 종성.
세황이 태연하게 승강기에서 내리자 좁은 통로를 비켜주는 아랍 남자들. 모두 세황을 경계한다.
종성 옆에 있던 아랍 남자 2가 세황을 보며 총을 잡는데-
세황이 재빨리 품에서 총을 꺼내 탕! 아랍 남자 2를 쏘며 복도 구석에 몸을 숨긴다.
동시에 아랍 남자 2가 세황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한다.

순간, 종성이 총을 꺼내는 아랍 남자 3을 공격하고-
아랍 남자 1이 총을 꺼내려하자 정희가 아랍 남자 1을 승강기 안으로 밀어붙인다.

종성이 아랍 남자 3의 총을 빼앗은 뒤 아랍 남자 3을 방패막이 삼아 아랍 남자 4를 겨냥한다.
승강기 안쪽으로 들어간 아랍 남자 4가 다급하게 총을 쏘자, 아랍 남자 3이 총알을 맞는다.
아랍 남자 1이 정희를 거칠게 가격하며 승강기 문을 닫는다.

아랍 남자 3의 시체를 잡고 바닥을 구르는 종성. 승강기가 닫히자 곧바로 아랍 남자 3의 총을 챙

겨 비상계단 문으로 뛴다.
세황이 사라지는 종성을 보는데- 파바박- 세황 옆으로 총알이 박힌다.

승강기 안.
아랍 남자 1이 정희의 목에 총구를 들이대고 있다.
아랍 남자 4가 5층을 누르는데, 승강기가 지나치자 바로 4층을 누른다.

6층 비상계단.
비상계단으로 나온 종성이 계단 아래로 바로 점프한다.
바로 이어서 5층 아래로 점프하는 종성.

6층 복도.
푸슈슈슉- 세황을 향해 총을 쏘며 다가가는 아랍 남자 2. 세황에게 거의 다가가는데- 철컥, 총알이 떨어진다.
순간, 바로 아랍 남자 2에게 탕! 탕! 탕! 총을 쏘며 나오는 세황.

4층 복도.
4층에 선 승강기에서 아랍 남자 4가 내린다.
정희는 아랍 남자 1에게 잡혀 승강기를 타고 내려간다.

4층 비상계단.
종성이 5층에서 4층으로 계단을 점프하며 내려가다 계단을 올라오는 아랍 남자 4를 발견한다.
계단 아래서 총을 쏴대는 아랍 남자 4.
종성이 계단을 구르며 총을 쏴댄다.

총알을 피해 벽으로 붙으며 응사하는 아랍 남자 4. 철컥- 총알이 떨어진다.
동시에 몸을 일으키며 총을 쏘는 종성. 철컥- 역시 총알이 떨어진다.
아랍 남자 4가 권총을 꺼내려는 순간,
들고 있던 기관총을 던지며 몸을 날리는 종성.
쿵!- 종성이 아랍 남자 4를 덮친다.
아랍 남자 4와 종성이 계단 아래로 구르며 육박전을 벌이는 두 사람.

3층 계단으로 구른 종성이 아랍 남자 4를 걷어찬다.
2층으로 다시 굴러 떨어지는 아랍 남자 4.
종성이 아랍 남자 4에게 달려들어 숨통을 끊어놓는다.
아랍 남자 4의 몸에서 권총을 꺼내 1층으로 달려 나가는 종성.

127. 중급호텔 앞 (Riga) - 실외/새벽

손목이 뒤로 묶인 정희가 케이터링 승합차 안에 처박힌다. 쾅! 문이 닫히고-

아랍 남자 1이 차에 시동을 걸고 마스크 벗는다. 이때 탕! 탕! 탕!
운전석 쪽 유리창이 깨지며 파편이 튀고, 아랍 남자 1이 머리를 숙이며 차를 출발 시킨다.
차 안의 정희가 호텔 쪽을 보면,
밖으로 뛰어나온 종성이 승합차 바퀴를 향해 탕! 탕! 탕! 총을 쏜다.
퍽- 터지는 타이어.
타이어가 터져 비틀거리는 승합차를 향해 달리는 종성. 필사적으로 총을 쏘며 승합차를 쫓는다.
차가 코너를 돌고, 종성의 총알이 떨어진다.
종성이 광장을 가로지르며 승합차를 쫓는다.

정희가 승합차를 향해 달려오는 종성을 본다.

종성이 몸을 날려 승합차 지붕에 달린 봉을 힘겹게 잡는다.
정희가 차에 매달린 종성을 본다.
종성을 매달고 달리는 승합차.

아랍 남자 1이 매달린 종성을 향해 총을 쏘려는데-
손목이 묶인 정희가 승합차 안에서 발로 운전석을 걷어차 아랍 남자 1을 교란시킨다.
탕-! 총알이 종성을 스친다.
핸들을 꺾는 아랍 남자 1.
위태롭게 방향을 트는 승합차. 종성의 몸이 휘청하는데, 가까스로 버틴다.
종성이 안쪽의 정희를 보는 순간,
다시 승합차가 방향을 튼다.
두 번째 우회전하는 원심력에 의해 차에서 떨어져나가며 바닥을 뒹구는 종성.
정희가 승합차 안에서 소리치며 종성을 본다.
종성이 정희가 탄 승합차를 향해 달리고 쓰러지고, 달리고 쓰러지기를 반복한다.
승합차는 저 멀리 도로로 사라져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절룩거리며 앞으로 가는 종성. 결국 주저앉는다.
이런 종성 뒤로 세황이 다가온다.
다가오는 세황을 느끼며 앞만 보고 있는,

표종성

... 당길라믄 지금 당기라.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천세황

(총을 겨눈 채)
일단 이동하자.

128. 외곽 도로 (Riga) - 실외/이른 아침

끼이익- 외곽을 달리던 동명수의 보위부 위장차량이 멈춰 선다. 차에서 내려 전화 받는,

압둘 (아랍어)

여자만 잡았다고?... 다른 건?

뒤따라 내리는 명수. 전화 끊는 압둘의 모습에서 실패를 눈치 챈다.

압둘 (영어)

... 현장에 둘만 있다고 그랬잖아! 애초에 정보를 제대로 줬어야 지! 현장에 다른 한 놈이 더 있어. 우리 애들까지 당했다고.

동명수 (영어)

다른 한 놈? 양키?

압둘 (영어)

너희 같이 생긴 놈이래.

동명수 (영어)

... 남조선 놈이다...
(의외의 상황에 잠시 고민하다)
일단 여자 데리고 계획대로 접선장소로 오라고 해.

129. 중급호텔 근처 골목 (Riga) - 실외/아침

차를 세워둔 골목으로 표종성을 앞세운 천세황이 걸어간다.
세황이 자신의 차를 향해 리모컨을 삐빅- 누르는 순간,
종성이 순식간에 세황을 덮친다. 퍼벅- 세황에게 맞으면서 필사적으로 세황의 총을 잡는 종성.
퍽! 세황의 주먹에 뒤로 휘청하고 물러서며 빼앗은 총을 겨누는,

표종성

차 열쇠.

어이없다는 듯 종성을 노려보던 세황이 차 열쇠를 종성 뒤편으로 휙 내던진다.
멀리 떨어진 열쇠를 보고 계속 총으로 세황을 견제하며 열쇠를 향해 가는 종성.
바닥에 떨어진 열쇠를 종성이 줍는 순간, 뒤에서 들리는 녹음기 소리...

다간 (영어 소리)

... 그러니까 유리가 중개하는 아심 조직과의 거래를 우리보고 깨달라고? 우리 쪽엔 아무 것도 원하는 게 없는데, 유리하고 아심

을 우리 쪽에 그냥 넘겨주겠다니?... 믿을 수 없어...

종성이 열쇠를 들고 일어서며 굳은 표정으로 세황을 돌아보면,
세황이 다간에게서 받은 MP3를 들고 있다. MP3를 끄는

천세황

궁금하냐?
(MP3를 자기 발아래 내려놓고)
더 듣고 싶으면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바짝 엎드려 이 빨갱이 새끼야. 콱 밟아서 다 부숴버리기 전에.

130. 국경지대 외곽 들판, 농가주택 - 실외/아침

인적 없는 들판에 위치한 홀로 서 있는 오래된 농가. 동명수가 타고 온 보위부 위장차량이 보이고, 정희를 태우고 온 케이터링 승합차가 농가를 향한다.

케이터링 승합차가 도착하자 동명수가 밖으로 나와 승합차를 향해 간다. 아랍 남자 1이 정희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정희를 끌어내리자 반갑게 맞이하는,

동명수

아이고, 형수... 이게 얼마 만이오? 오랜만인데 반갑지 않수?
(정희가 싸늘하게 바라보자 씨익 웃으며)
내가 이래서 형수 좋아한다니까니...
(정희의 볼을 만지며)
화냥년.

131. 대성당 강가 한적한 곳 (Berlin) - 실외/아침

찰칵- 세황이 녹음기를 끄고 대시보드 위에 내려놓는다.
길가에 세워진 세황의 차안에 녹음내용을 모두 확인한 종성과 세황이 타고 있다.

천세황

얘가 그때 호텔에서 왜 널 풀어줬다고 생각 하냐 넌? 마카오, 베를린, 무기 장사, 공관, 스파이, 암살, 망명까지... 이 걸 다 어떻게 엮어야 말이 되지?...

전차가 지나가는 가운데, 차안에서 말을 이어가는,

천세황

이학수가 히든카드로 내밀었던 그 계좌. 김정일이 남긴 40억 불. 그럼 말이 돼. 김정일이 죽었으니, 김정은한테로 계좌 라인을 바꾸고 관리 라인도 갈아야 되겠는데, 평양이나 이학수나 서로 불안하거든. 평양에선 외국 공관에서 나이 어린 지도자를 못 믿는 게 눈에 보이니까 배신당하기 전에 버려버리자. 그 와중에 너도 당에서 도매급으로 처리한 거구. 넌 끝났어.

표종성
... 틀렸소... 날 배신한 건... 공화국이 아니오.

천세황
니네하고 우리하고 요즘 쓰는 말이 많이 다르냐?

표종성
... 알려면 정확하게 알아두시오. 이 모든 건 동중호의 짓이오.

천세황
누구?

표종성
당신 양키 친구 저격했던 놈 애비.

천세황
니가 책임 질 수 있는 말만 지껄여라.

표종성
그 계좌의 주인은 위원장 동지가 아니라 동중호와 군 간부들이오. 리학수 동지도 거기 개입이 되었다 버려진 거고.

천세황
지금 그 계좌 누구 손에 있어?

132. 농가주택 - 실내/아침

와인을 잔에 따라 들고 정희가 앉아있는 곳으로 다가가는,

동명수
아까 싸움에 끼어들었던 놈 잘 생각해 보라... 표종성이는 남조선으로 넘어갔어. 끝났다고.
(와인을 먹여주며)

설마 마누라 고발까지 하고 지 혼자 살겠다는 놈 기다리는 건 아니지?
(정희가 거부하자 정희 뒤로 가 정희의 몸에 바짝 기대며)
이렇게 하자. 표종성이 이중간첩 혐의만 증언하라. 앞뒤 정황은 내가 맞춰줄 테니. 그리고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나랑 다시 시작하는 기야...

련정희
당 허가도 없이 우리를 이 꼴로 만들고 얼마나 무사할 것 같나?

동명수
(싸늘하게 귓속말)
기걸 누가 아는데?

압둘이 정희와 대화하는 명수를 보고 있는데, 따르르릉- 전화벨이 울린다.
놀라서 명수를 돌아보는,

압둘 (영어)
여길 아는 사람이 있어?

동명수 (영어)
(여유 있게 전화기를 향해 가며)
여길 쓰던 사람은 알지.

133. 농가주택과 대성당 강가 한적한 곳(Berlin) - 실내,외/아침

대성당 강가 한적한 곳. (Berlin)
세황이 지켜보는 가운데, 터널에 서서 통화하는,

표종성
나다.

농가주택.
정희를 돌아보는,

동명수
쏘세지만 쳐 먹더니 뱃대지에 기름이 꼈나, 왜 이리 늦소? 남조선 놈들은 잘해 주오?

대성당 강가 한적한 곳. (Berlin)

표종성

... 정희 데려가나?

농가주택.

동명수

증언해줄라믄 증인이 필요하지 않갔어? 형님이 지금 남조선 놈들 하고 붙어먹은 건 사실이잖소?

대성당 강가 한적한 곳. (Berlin)

표종성

... 정희 좀 바꾸라.

농가주택.
동명수가 피식 웃더니, 호위요원에게 정희를 데려오라고 손짓한다.
결박당한 채로 끌려오는 정희에게 동명수가 수화기를 대준다.
침착하게 통화하는,

련정희

... 무사합니까?

대성당 강가 한적한 곳. (Berlin)
정희의 숨소리를 들으며 이를 악무는,

표종성

... 아무렇지 않다... 마음 달래고 조금만 더 고생하라.

농가주택.
종성의 목소리를 듣던 정희가 무너지지 않으려 애쓴다. 이 위로-

표종성 (소리)

우선 명수 말 차분히 듣고...

대성당 강가 한적한 곳. (Berlin)
애써 확신에 찬 목소리를 내는,

표종성

내... 늦지 않게 데리러 간다.

수화기 너머 탕! 총소리가 들린다. 놀라는 종성.

농가주택.
동명수가 수화기 쪽에서 총을 쏜 뒤 달궈진 총구로 정희의 뒷덜미를 지진다.

대성당 강가 한적한 곳. (Berlin)
정희의 비명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새어나온다.
순간 이성을 잃고 흔들리는 종성.

농가주택.
이를 악물고 비명을 참는 정희의 얼굴에 바짝 다가가 수화기에 말하는,

동명수
뭐 이리 헛된 희망을 심어주오?

대성당 강가 한적한 곳. (Berlin)
거친 호흡을 고르며 수화기에서 새어나오는 정희의 신음소리를 듣는,

표종성
... 곱게 뒤질라믄 조심하라.

농가주택.
땀을 줄줄 흘리며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아내는 정희.
동명수가 일부러 들리라는 듯 수화기를 들고 정희를 잡아채 그녀의 입술에 거칠게 키스를 퍼붓는다. 정희가 강하게 이를 거부한다.

대성당 강가 한적한 곳. (Berlin)
명수가 만들어내는 소리를 듣는 종성. 피가 끓는다.

농가주택.
정희가 명수에게서 떨어지며 명수에게 침을 뱉는다. 순간 호위요원이 정희의 팔을 꺾어 붙잡고, 명수가 곧바로 정희의 뺨을 세차게 후려친다.
호위요원이 정희를 거칠게 끌고 간다. 이런 정희를 보고 즐기며 통화하는,

동명수
난 내가 원할 때 죽을 테니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날래 기들어 오라.

대성당 강가 한적한 곳. (Berlin)
종성이 전화를 끊고 세황에게 건넨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아내기 힘든 종성. 소리도 지르지 못할 정도로 올라온 화를 누르려 애를 쓴다.

세황이 이런 종성을 지켜본다.

표종성
... 날 보내주면 당신이 원하는 계좌를 찾아오겠소.

천세황
내가 사람이 좋아 보이지? 막 어려운 북녘 동포 돕고 그럴 사람 처럼 보이냐? 이 개 미친 빨갱이 새끼야? 이게 사람 뭘로 보고...

표종성
내가 가지 않으면 계좌도 못 찾소.

천세황
어차피 그거 못 찾아도 난 월급 나와.

표종성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죽는 단 말이오!

천세황
내 죽은 친구도 회사 몰래 나 도와주려는 죄 밖에 없었어.

표종성
... 뱃속에 애가 있는 여자요....

여전히 세황이 흔들리지 않자 무릎을 꿇는,

표종성
... 전향하갔소.

134. 국경지대 외곽 들판, 농가주택 - 실외/저녁에서 밤

석양을 배경으로 낡은 차 한대가 들판을 가로지르며 농가 주택을 향해 간다.
차에서 추가로 도착한 압둘의 부하 세 명이 무기를 들고 내린다.

들판에 어둠이 깔린다.
저 멀리 어둠을 뚫고 우유탱크 트럭이 농가주택을 향해 온다.
트럭에서 북한 요원 셋이 내린다.

135. 국경지대 외곽 들판, 농가주택 - 실외,내/밤에서 아침

농가 주택. 밤
정희가 이들의 모습을 지켜본다.

농가 주택 마당. 밤
승합차에서 리학수의 시신을 숨겨둔 상자를 꺼내는 북한 요원들.
보디 백을 꺼내 방수포를 씌운 뒤 잠수용 웨이트를 단다.
우유 탱크 트럭의 탱크를 연 뒤, 줄로 보디 백을 잡아당겨 우유 속에 집어넣는 북한 요원들.
보디백이 우유 탱크 속으로 가라앉는다.

압둘 (영어 소리)
그 놈이 오긴 오는 거야?

농가 주택. 밤
압둘과 그의 부하들이 동명수와 함께 카드를 치고 있다.

동명수 (영어)
(시계를 슬쩍 보고)
아직 한참 남았어. 그 놈은 새벽 네 시 넘어야 와.

압둘 (영어)
시간 약속이라도 했어?

동명수가 피식 웃으며 뒤쪽에 보초를 서고 있는 압둘의 부하를 가리킨다. 압둘이 돌아보면,
보초 서던 압둘 부하가 꾸벅꾸벅 졸고 있다.

들판. 밤
갈대 사이로 세황의 차가 숨겨져 있고, 그 앞에서 종성과 세황이 망원경으로 주택 쪽을 살핀다.

천세황
사방이 뻥 뚫려서 해뜨기 전에 끝내야 되는데... 지원 없이 가능하겠어?

표종성
압둘 쪽 놈들이 있어서 인질이 더 위험해 지오. 후방만 정확히 봐주면 혼자 해결할 수 있소.

표종성이 시계를 본다.

농가 주택. 밤
벽시계가 새벽 4시 43분을 가리킨다.

구석 의자에 묶여 있는 정희가 필사적으로 손목을 움직여 손목을 죄고 있는 플라스틱 수갑을 풀려고 하지만, 손목에서 피만 흐른다. 그 앞을 지키고 있는 북한 요원 1이 각성제를 먹는다.

천세황 (소리)

여기서 더 버티다간 해 떠.

들판. 밤

세황이 자동차 트렁크 앞에서 마이크로 이어폰을 꺼내 종성과 나눠 착용한다.
동시에 재빨리 이중 트렁크에 숨겨둔 장비를 꺼내 조립하는 세황.
조명탄 총을 꺼낸 후 권총을 저격용으로 조립하는 세황을 보는,

표종성

저격 훈련은 받아봤소?

천세황

나 사격으로 사단장 포상휴가 받았던 사람이야...

종성과 세황이 서로의 시간을 맞춘다.
현재 시각 새벽 4시 48분.

천세황

(종성에게 열쇠를 건네다가)
한 가지만 얘기하는데... 뒤통수는 치지 마라.

표종성

(열쇠를 건네받고 차에 오르며)
우린 남조선 사람들처럼 한입으로 두말 안하오.

천세황

지랄하네...

농가 주택. 밤

플라스틱 수갑을 벗어내려던 정희가 지치기 시작한다.
이때 정희를 지키던 북한 요원 1이 밖에서 뭔가 발견하고 창가로 이동한다. 정희가 창가로 향하는 다른 북한 요원들과 아랍 남자들을 본다.

창밖을 살피던 호위 요원이 차량 불빛을 보고 동명수를 본다.

명수와 압둘이 서로를 돌아보고,
정희는 긴장한다.

들판. 밤
종성이 모는 차가 주택 마당을 향해 간다.

무기를 든 세황이 갈대 사이로 종성이 모는 차량과 다른 방향으로 달려 농가 주택으로 접근한다.

농가 주택. 밤
북한 요원 2가 야간 투시경으로 들판을 살피는데, 아무 것도 잡히지 않는다.

들판. 밤
세황이 주택 창문이 보이는 곳에 자리해 사격자세를 잡는다. 숨을 헐떡이며 무전 하는,

천세황
위치확보.

안으로 진입하는 종성의 마이크로 이어폰으로 들리는,

천세황 (무전소리)
딴 생각 말고,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니가 내 밥줄이다.

농가 주택 마당. 밤
종성의 차량 앞으로 아랍 남자 둘이 나와 차를 세운다.
차에서 내리는 종성. 순간 뒤에서 파박- 호위 요원이 튀어나와 종성을 잡는다.

들판. 밤
세황이 망원경으로 농가 주택 주변을 살핀다.

천세황
밖에 북한 둘, 아랍 둘.

농가 주택 마당. 밤
붙잡힌 종성이 몸수색을 당하고, 북한 요원2는 차 내부와 외부를 살펴본다.

호위 요원이 종성의 몸에서 MP3와 동전 USB를 찾아낸다.
계산하며 걸어가는 종성 위로-

천세황 (무전 소리)
실내 중앙 테이블에 아랍 둘, 북한 둘. 중앙 세 시 방향 창가에 아랍 하나. 여자는...

들판. 밤
망원경으로 정희를 확인하는,

천세황

중앙 테이블 일곱 시 방향. 구석 의자에 결박. 그 옆에 북한 하나,
그 뒤 열두 시 방향 아랍 하나.

세황의 시점으로 정희가 보이고, 정희 옆에 북한 요원 1과 그 뒤에 있는 상처 입은 아랍남자 1이 보인다.

천세황 (무전소리)

여자 신변 상태 양호.

농가 주택 마당. 밤
종성이 주택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뒤에서 호위요원이 지지직- 전기 총을 종성에게 쏜다.

들판. 밤
찌잉-! 전기충격으로 송수신장치가 망가지자, 소리에 놀란 세황이 귀를 잡는다.

농가 주택 마당. 밤
전기 총을 맞은 종성이 무릎을 꿇는다.

들판. 밤

천세황

(이어폰을 만지며 망원경으로 종성을 살피는)
내 소리 들리면, 고개 털어.

농가 주택 마당. 밤
종성의 이어폰은 전기충격으로 망가진 상태. 헐떡거리는 종성이 정신을 잃지 않으려 버티고, 호위요원과 북한 요원 2가 종성을 일으킨다.

들판. 밤

천세황

(무선 연락이 끊기자)
쌍...

농가 주택. 밤
호위 요원이 먼저 들어와 명수에게 MP3와 동전 USB를 전달하며 귓속말로 보고한다.
압둘이 흥분하며 문 쪽을 본다.
끌려 들어온 종성이 안을 살피는 척하며 정희가 있는 곳을 살핀다.
정희가 종성과 눈이 마주친다.

순간, 퍽! 부하의 AK 소총을 빼앗아 개머리판으로 종성을 후려치는 압둘.
우당탕! 종성이 바닥으로 나뒹군다.
정희가 이런 종성을 보고 일어나려는데 북한 요원 1이 정희를 의자 앉힌다.

퍽! 퍽! 퍽! 욕을 해대며 쓰러진 종성을 마구 짓밟는 압둘.
종성은 얻어맞으면서도 정희의 상태를 확인한다.
이 뒤로 다가오는,

동명수 (영어)
그래서 사람이 죽겠어?

압둘 앞으로 나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쓰러진 종성을 짓밟는 명수.
종성은 거의 초죽음 상태에 이른다.
압둘이 명수의 기세에 눌려 한풀 꺾인다.

동명수 (영어)
(압둘을 보며)
개인적인 시간은 따로 줄 테니까 벌써 힘 빼지 말자고. 복수는 원래 마지막 순서야.

들판. 밤
세황이 종성을 질질 끌고 테이블로 향하는 내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농가 주택. 밤
여유 있게 자신의 자리에 앉아 질질 끌려오는 종성을 보는,

동명수
남조선 놈들은 어카고 혼자 오셨소?

구석에 있던 정희가 종성을 본다.

표종성
(애써 고통을 참고 여유를 찾으며)
... 바보 잡자고 등신 끌어들이갔나?...

동명수
(피식 웃으며)
간나새끼... 주둥이는...
(호위 요원에게)
주위 잘 살피라 하고, 에미나이 데려오라.

북한 요원 1이 결박된 정희를 종성 옆으로 데려온다.
정희가 끌려와 앉으며 종성을 본다.
종성이 정희의 피맺힌 손목을 본다.
노트북에 USB를 연결하며 정희를 보는,

동명수
그 와중에 빠져나가 볼라 애 쓰셨소.

표종성
이렇게까지 안 해도 너희 집안이면 베를린 공관은 장악할 수 있잖네.

압둘이 대화하는 둘의 모습을 지켜본다.

동명수
(USB 내용을 확인하며)
몸통은 하난데 어찌 머리가 둘이겠나?... 우리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잖소.

표종성
대장 동지랑 동중호 동지 사이가 그 밖에 안 되네?

동명수
(USB 빼내고 종성을 보며)
대장 동지도 사람이잖소. 사람은 배신해.

들판. 밤
망원경으로 컴퓨터 정리하는 동명수를 지켜보며 혼잣말하는,

천세황
오케이... 그렇게만 있어주면 우린 땡큐야...

농가 주택. 밤
확인을 마치고 만족스럽다는 듯 종성을 보는,

동명수
천하에 표종성이도 에미나이 앞에선 어쩔 수 없구만. 대체 뭔 정신으로 이래 대책 없이 기어 오나?

노트북 위에 올려놓은 USB를 보는,

표종성

원하는 대로 배신자가 돼주러 왔다. 여기서 보내주기만하믄 평생 숨어서 살 자신 있고... 니들 원하는 자백은 거기 다 담아 놨다.

동명수

참 내... 살자고 별 짓 다하누만... 이거 영광이오. 천하의 표종성이 자백을 다 듣게 해주고.
(MP3를 들어 보이며)
천하에 인민영웅 표종성 중좌동지가 공화국을 배신했다? 야, 이거 설레누만. 함 들어보자.

표종성

그 전에... 하나만... 정희가 다니는 병원이 양키 대사관 근처에 있다는 걸 알고 간첩이라 시험했나?

동명수

병원?... 아...
(정희의 배를 보며)
애 뱄다 그랬지? 난 기냥 던진 기야. 거기 다 짜 맞춘 건 형님이 다 한 거잖소. 화살 먼저 쏘고 그 담에 과녁 그리는 게 형님 특기 아니오?

종성이 정희를 보고 고개를 숙인 뒤, 세황이 있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다.

들판. 새벽

망원경을 통해 종성과 눈이 마주친 세황이 조명탄을 준비하며 동 트는 새벽을 신경 쓴다.

농가 주택. 새벽

동명수가 MP3를 재생한다.
긴장하고 듣는 사람들.

표종성 (소리)

... 나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전사 표종성은 자아비판의 시간을 갖는다...

종성을 보는 정희.
명수가 이런 종성을 보고 피식 웃으며 MP3를 테이블 가운데 놓는다.
잠시 소리가 멈추더니 다시 이어진다.

동명수 (영어 소리)

당에서 베를린 공관을 갈아치우고 싶어 해. 그런데 지금은 현재

공관인력들을 갈아치울 명분이 없거든.

순간 표종성과 눈을 마주치며 테이블 위에 손을 뻗는,

동명수

이런 개...

하는데, MP3를 끄는 동명수의 손을 잡아채는,

압둘 (영어)

계속 틀어 놔.

철컥- 압둘이 권총을 꺼내 보인다.

철컥- 철컥- 아랍인들과 북한 요원들이 서로 총을 겨누고 대치하는 상황이 세황의 시점으로 보인다.

들판. 밤
망원경으로 이를 보며 혼잣말 하는,

천세황

아아... 그건 노 땡큔데...

농가 주택. 새벽
대치상황 위로 흐르는,

다간 (영어 소리)
... 유리가 중개하는 아심 조직과의 거래를 우리가 깨 주면 북한 공관 인력을 갈아치울 명분이 생긴다는 거야?

동명수 (영어 소리)
이스라엘은 그렇게 잡고 싶어 하던 유리하고 아심을 손에 넣는 거고.

철컥- 동명수의 관자놀이에 압둘의 총구가 닿는다.

압둘 (영어)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봐.

들판. 새벽
내부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준비하는 세황.

농가 주택. 새벽
명수와 눈이 마주치는,

표종성
내가 항상 그랬지? 넌 성격이 급해서 결정적일 때 실수한다고.

동명수
(압둘은 신경 쓰지 않고 피식 웃으며 종성에게)
넌 니가 다 가진 줄 알지? 넌 인민영웅 행세하다 이 꼴 됐어...
(압둘이 관자놀이에 들이댄 총구를 더 세게 들이대자 종성에게)
좋은 선생이었던 건 인정하오.

순간, 종성이 정희를 밀치며 바닥으로 쓰러진다.
동시에 명수가 압둘의 총구를 비켜내며 고개를 확 돌린다.
탕! 압둘이 총을 발사하고-

들판. 밤
탕- 세황이 주택을 향해 조명탄을 쏜다.

농가 주택. 밤
타타타탕- 서로에게 총질을 해대는 사람들.
밖에서 보초를 서던 아랍 남자 4가 들어오다 북한 요원 2와 서로 난사해 서로를 죽인다.

쾅! 유리를 뚫고 세황이 쏜 조명탄이 들어온다.
갑자기 환해지는 실내. 사람들 모두 시야가 환해져 당황하고-

종성이 재빨리 정희를 보호하며 테이블 다리를 차 부순다.
테이블이 부서지며 바닥에 노트북과 MP3, USB가 떨어지고-
종성이 바닥에 떨어진 USB를 집는다.

투타타타타- 시야가 불안한 상태에서 서로를 쏴대는 사람들. 압둘이 동명수에게 당하고-
호위 요원이 압둘 부하 1을 쏜다. 압둘 부하 1이 부상을 입고 몸을 숨긴다.

종성이 테이블에서 떨어진 칼로 정희의 손목 수갑을 자른다.

북한 요원 1이 압둘 부하 2를 쏜다. 압둘 부하 2 옆에 있던 압둘 부하 3이 북한 요원 1을 쏘고-
북한 요원 1 옆에 있던 북한 요원 3이 압둘 부하 3을 쏜다.
압둘 부하 3이 쓰러지며 난사한 총알에 가스 밸브가 터진다.

푸슈슉- 가스가 새어나온다.

바에 숨어있던 아랍 남자 1이 북한 요원 3을 쏜다.
북한 요원 3이 지니고 있던 수류탄 핀이 총알에 맞아 떨어져 나간다.

북한 요원 3이 바닥에 떨어지며 펑-! 수류탄 폭발에 날아간다.
밸브에서 새어나오던 가스로 인해 수류탄 화염이 허공에 붙었다 깨진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바람에 휩쓸려 잦아드는데- 가스가 계속 새어나온다. (밝아진 시야가 정상으로 돌아온다.)

종성이 쓰러진 북한 요원 2의 총을 잡는다.
명수가 종성을 겨냥하는데, 파바박-
부상당한 압둘 부하 1이 명수를 향해 총을 쏜다.
명수가 총알을 피해 몸을 숨기고, 그 옆에 있던 호위 요원이 압둘 부하 1을 향해 총을 쏴 죽인다.

아랍 남자 1이 가스 밸브 쪽으로 물러나며 종성을 향해 총을 쏘는데-
종성이 정희를 데리고 다시 물러나며 호위 요원을 향해 총을 발사한다.
정희가 북한 요원 2의 허리춤에 있던 권총을 뽑아 아랍 남자 1을 향해 쏜다.
탕탕탕! 아랍 남자 1이 쓰러지며 투타타타- 기관총을 난사하고-
기관총 화염이 밸브에서 새어나오던 가스와 부딪치며 폭발을 일으킨다.

쾅!- 아랍 남자 1이 가스폭발 화염에 휩싸인다.

정희를 데리고 밖으로 빠져나가던 종성이 터지는 가스 폭발에 밀려 마당으로 나가떨어진다.

이와 동시에 집안에 남아있던 동명수와 호위 요원이 폭발 화염에 밀려 창밖으로 튀어나온다.

들판. 새벽
천세황이 가스 폭발에 놀라 주춤한다.

농가 주택 마당. 새벽
정신을 차린 종성이 정희를 일으켜 세워 재빨리 세황의 차를 향해 달린다.

몸을 일으키며 호위 요원이 떨어뜨린 총을 집고 아무데나 난사하며 걸어 나오는,

동명수
뵈는 족족 소멸시키라!

들판. 새벽
라이플을 들고 들판을 가로질러 달리는 세황 뒤로 새벽 동이 터 오른다.

농가 주택 마당. 새벽
종성과 정희가 세황의 차에 거의 도착하는데-

명수와 호위 요원이 종성과 정희를 향해 무차별 사격을 해댄다.
종성이 정희를 데리고 세황의 차 뒤쪽으로 몸을 숨긴다. 세황의 차가 박살난다.

들판. 아침
들판을 달려오다 자신의 차가 박살나는 것을 보고 열 받아 자리를 잡고 조준하는,

천세황
저런... 개새끼들이... 내 차를...

농가 주택 마당. 아침
세황이 북한 요원들의 차량을 향해 총을 쏜다.
퍽! 퍽! 세황이 쏜 총알이 차량들의 엔진과 바퀴와 연료통을 뚫고-
펑!- 차량 엔진이 터지며 보닛 뚜껑이 터져 오르고- 연료통을 맞은 차량들이 터진다.
세 대의 차량이 차례로 터지며 일으킨 화염과 파편이 명수와 호위 요원을 떼어놓고,
종성은 이틈을 타 정희를 데리고 아침 햇살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갈대 들판을 향해 달린다.
명수와 호위 요원이 종성을 쫓으려는데,

농가 주택 쪽 들판. 아침
세황이 속사사격으로 명수와 호위 요원의 이동을 막는다.
호위 요원이 창가에 걸려있는 북한 요원 2의 기관총을 챙겨 들고 세황을 향해 응사한다.

들판. 아침
종성이 정희를 데리고 황량한 갈대 들판을 필사적으로 달린다.

농가 주택 쪽 들판. 아침
재빨리 탄창을 갈아 끼우는 세황.

농가 주택 마당. 아침
잠시 엄호사격이 멎자 명수가 종성과 정희를 뒤쫓는다.

농가 주택 쪽 들판. 아침
다시 탕! 세황이 명수를 향해 이동하며 총을 쏘고,
명수가 날아드는 총알을 피해 몸을 숙인다.
호위 요원이 세황 쪽을 향해 투타타타- 총을 쏘고-
세황의 다리가 총알에 뚫린다. 땀범벅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는 세황.

들판. 아침
명수는 다시 기관총을 난사하며 정희와 종성을 뒤쫓는다.
난사되는 총소리를 들으며 계속 달리는 종성과 정희. 끝도 없이 펼쳐지는 갈대 숲.
갈대 수풀이 파바박- 튄다.
달리던 정희가 바닥으로 쓰러진다..

종성이 내려다보면,
정희의 다리 사이로 피가 흐른다.

미친 듯이 난사하며 달리던 명수가 총알이 떨어지자 권총을 꺼내든다.

명수가 오는 쪽을 살피며 정희를 갈대 숲 안쪽으로 숨기고 외투를 벗어 머리를 대주는 종성.

련정희

날 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표종성

(정희를 눕히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련정희

(종성의 손을 잡으며)
... 당신 마음 압니다...

표종성

내 맘 알믄 끝까지 버티라.

탕! 탕! 명수가 총을 쏘며 종성에게 다가온다.
종성이 남은 총알을 확인하고 명수가 오는 방향으로 몸을 틀어 선다. 명수를 향해 총을 쏘며 옆으로 이동하는 종성.

명수가 종성을 향해 탕! 탕! 탕! 총을 쏘며 종성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농가 주택 쪽 들판. 아침
기관총 난사를 하는 호위 요원.
침착하게 목표물을 조준해 쏘는 세황.
탕!- 슈욱- 퍽! 호위 요원의 어깨를 관통하는 총알.
호위 요원이 휘청하는 것을 본 세황이 일어나 침착하게 조준한다.
호위 요원도 몸을 일으켜 계속 기관총 난사를 해댄다.
탕!- 슈욱- 퍽! 탕! 슈욱- 퍽! 탕! 슈욱- 퍽! 전진이동하며 정조준 사격을 하는 세황.
몸 곳곳이 뚫린 호위 요원이 허공에 기관총을 갈겨대며 바닥을 구른다.
세황의 망원경으로 보이는 호위 요원은 고통을 못 이겨 몸부림치고 있다.
이런 호위 요원을 보며 마지막 한 발을 재는 세황.
탕-! 세황의 마지막 한 발이 호위 요원을 잠재운다.

들판. 아침
계속 정희와 멀어지며 옆으로 이동해 명수를 유인하는 종성.

탕탕탕탕! 서로에게 총을 쏘는 종성과 명수.
퍽! 퍽! 종성의 어깨를 스치고, 명수의 허벅지를 스치는 총알.
총알 하나가 종성의 복부를 관통한다.
철컥- 철컥- 총알이 떨어지자 종성이 갈대 밑으로 몸을 숨긴다.
자신의 허벅지에서 흐르는 피를 보며 눈이 돌아가는 명수. 빈총을 거꾸로 거머쥐고 종성을 쫓아 갈대 숲 안으로 들어간다.
종성도 자신의 총을 거꾸로 거머쥔다.
갈대숲에서 서로 은폐하며 움직이는 종성과 명수.
돌을 던져 자신의 위치를 교란시키는 종성.
명수 역시 종성을 교란하며 움직이다 종성을 습격한다!

세황이 다리를 절뚝이며 힘겹게 갈대숲을 향해 달려간다.

권총 손잡이를 둔기로 사용해 붙는 종성과 명수. 서로가 든 무기로 살벌한 격술을 펼친다.
서로의 급소와 상처를 노리는 두 사람.
명수가 몸을 날려 종성을 가격해 함께 바닥으로 쓰러진다.

세황이 갈대 숲 안으로 들어간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 끝에 종성이 명수에게 밀리기 시작한다.
서로의 머리를 권총으로 후려치는 두 사람.

갈대숲을 헤치던 세황이 격렬하게 싸우는 두 사람 쪽으로 이동하다 갈대 숲 사이에 쓰러져 있는 련정희를 발견한다.

종성의 상처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명수.
통증을 느끼며 밀리는 종성이 권총을 휘둘러 명수의 손목을 후려친다.
권총을 놓친 명수가 종성을 잡아채 목을 조르고, 만년필 독침을 꺼내든다.
순간, 종성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권총을 휘두르는데,
명수가 발로 종성의 권총을 걷어 차내고 종성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른다.
목 졸린 종성은 명수의 만년필 독침을 잡고 버틴다.

힘겹게 쓰러진 정희에게 다가서는,

천세황

움직일 수 있겠어요?
(정희가 자신을 경계하자)
... 같은 편이야. 괜찮아...

정희의 상처를 확인한 세황이 견제하는 정희를 안심시키고 정희에게 다가간다.

동명수가 표종성을 향해 만년필 독침을 찌르려는 순간-
종성이 명수의 관절을 꺾으며 만년필 독침을 잡아챈 뒤, 명수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올라탄다.

동명수
... 찌르라. 날 찔러서 끝낼 수 있으믄 찌르라.

종성이 독침을 들고 명수를 겨누고 부르르 떤다.

동명수
날 죽일 베짱이나 있간?... 죽여 봐야 끝나지 않는다는 건 잘 알잖네. 내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잘 얘기 할 테니, 여기서 끝내자...

표종성
... 사람은 배신해.

종성이 명수의 목에 독침을 찌른다. 독침에 찔리면서도 종성의 멱살을 잡고 버티는,

동명수
... 이... 버러지... 새끼...

독이 퍼지기 시작한 명수가 표독스럽게 종성을 바라보며 종성을 향해 침을 뱉는다.
몸이 마비되기 시작한 명수가 발작을 일으키며 고통스러워한다.
온 몸에 힘이 다 빠진 종성이 힘겹게 일어난다.
피부색이 변한 명수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는 결국 숨을 거둔다.

정희가 경계를 풀지 않자 세황이 정희를 살피는데, 다리 아래로 피가 흐르는 것을 본다.

천세황
여자가 찬 바닥에 이러고 오래 있으면 안 좋아요...

싸움을 끝낸 종성이 정희를 향해 온다.
수풀 쪽을 돌아보는 세황과 정희. 세황이 종성을 확인하고 들었던 총을 내려놓는다.
걸어오던 종성이 갑자기 푹 쓰러진다.
이를 지켜보는 세황과 정희.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세황이 종성을 향해 간다.

자신이 입고 있던 어두운 색 셔츠를 들추는 종성. 총상이 깊은지 엄청난 피가 흐른다.
거친 호흡을 내쉬며 고통을 참는 종성.
세황이 이런 종성을 확인하고 종성을 향해 다가온다.

정희가 힘겹게 몸을 일으킨다.

자신의 셔츠를 벗어 찢은 뒤 붕대 삼아 종성에게 묶어주는,

천세황

이제 다 끝났어, 조금만 참아.

종성이 피 묻은 손으로 주머니에서 힘겹게 동전 USB를 꺼내 세황에게 넘겨준다.

천세황

(붕대를 묶어주며)
지금 바쁘니까 이따 줘.

표종성

(세황의 바쁜 손길이 귀찮은 듯 뿌리치며)
... 내... 약속 지켰으니... 그쪽도 꼭 지켜주오...

천세황

알았어, 나중에.

세황의 멱살을 잡는 종성. 힘이 빠지며 눈이 돌아간다..

천세황

야이 씨발 놈아, 자꾸 움직이니까 안 묶이잖아!

하는데 이미 세황이 응급으로 종성에게 묶어 준 셔츠 천도 종성의 피로 다 젖어 버린 상태다.
종성이 세황과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젓는다.
이 뒤로 정희가 다가와 종성의 손을 잡는다.

련정희

여기서 이러지 말고 갑시다.

정희가 종성을 일으키려는데,
종성이 정희의 손을 당겨 옆에 앉힌다.

표종성

... 아직 둘째 이름을 생각 못했다...

세황이 두 사람에게서 떨어져 선다.
정희가 종성의 머리를 자기 무릎에 대준다.

표종성

... 당신이 나보다 훨씬 현명하니... 좋은 이름으로 지어주라... 놀

림 안 받고... 나이 들어서도 듣기 좋은 이름으로...

련정희
(종성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종성 말투를 흉내 내어)
... 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오...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지...

눈물 흘리며 종성의 머리를 쓰다듬는 정희에게,

표종성
... 내... 자네에게 신세만 지다 간다...

련정희
... 우리... 할 얘기가 아직 많습니다...

표종성
(정희의 손을 꼭 쥐며)
... 좀... 쉬었다 하믄 안되잤나?... 내... 요 며칠 잠을 너무 못잤거든...

정희가 종성을 바라본다.
종성이 잠들 듯 눈을 감는다.
정희가 굵은 눈물을 뚝 떨어트린다.
뒤에서 세황이 두 사람을 지켜본다.
오열하는 정희의 모습이 멀리 보인다. 갈대 들판에 바람이 분다. 바람소리 커진다.

136. 유럽 어느 기차 역 (Riga) - 실외,내/낮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기차역 풍경. 이 위로 뜨는 자막.

6개월 후

천세황 (소리)
이제 더 이상 불안하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될 거예요.

북적대는 사람들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세황의 모습 위로 선행되는,

천세황 (소리)
평양에서 계좌에 관련된 인물들 숙청에 들어갔데요. 동중호는 교통사고로 위장해 처리했단 소식도 들리고...

역내 구석에서 세황과 만나 새로운 여권을 보는,

련정희
눈으로 시체 확인해 보셨습니까?
(세황과 눈 마주치며)
아시잖습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천세황
... 몸은 좀 어때요? 병원은 다니고 있어요?

련정희
양호하답니다. 발길질 하는 게 꼭 지 아빠 같습니다.

천세황
애비 닮으면 속 좀 썩을 텐데... 그리고 이건 전에 부탁했던 거...
잘 나온 게 이거 밖에 없어요.

세황이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정희에게 건넨다. 앞서 웨스틴 호텔 거래현장에서 포착한 종성의 사진이다. 사진 속 종성의 모습이 늠름하다.
종성의 사진을 보는 정희. 울컥한다.

천세황
그냥 내 생각인데... 정희 씨가 이런 식으로 자꾸 붙잡고 있는 거
그 친구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되도록 빨리 잊고...

련정희
그 사람 남은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그래도 애가 아빠 얼굴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천세황
... 언제라도 힘들면 얘기해요. 전향서도 준비해놨고, UN 난민신청도 언제든 가능하니까.

련정희
아직도 저한테 어디서 사는 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사는 세상 어디나 마찬가지란 거 아시잖아요.

천세황
그렇죠... 어디서 사는 지는 중요하지 않죠. 누구랑 어떻게 사는 지가 중요하지...

련정희

(미소 지으며)
돈 없다고 사람 앞에서 주눅 들지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 보듯 하지 마십시오.

천세황

(미소로 답례하며)
... 그래 보여요? 잠을 못자서 그런가?... 참... 그건 그렇고 이건...

세황이 뭔가 꺼내려 주머니에 손을 넣자 세황이 돈을 주는 줄 알고 서둘러 인사하는,

련정희

아무튼 고맙습니다. 받을 건 받았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천세황

아니... 저기...

사진을 챙긴 뒤 가볍게 목례하고 돌아서는 정희.
세황이 주머니에서 꺼내려던 것을 다시 넣는다.

사람들 틈으로 사라지는 정희의 모습을 지켜보는 세황. 한참을 서있다.
정희를 보낸 세황이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 내려 본다. 정희에게 주려고 했던 아기 신발이다.
피식 웃으며 아기 신발을 주머니에 넣는 세황.

티켓부스를 향해가는 정희. 뱃속의 아기가 발로 차는지 배를 만진다.
줄 서 있던 정희가 들고 있던 종성의 사진을 본다.
자신의 차례가 오자 새로 받은 여권을 내미는,

련정희

암스테르담, 편도.

티켓을 들고 사람들 틈으로 사라지는 정희의 모습 위로 힘찬 음악 흐르며- 컷 아웃.

2012. 3. 1. 류승완